

김통정 전설의 전승 양상

변숙자*

<목 차>

1. 서론
2. 역사적 사실
3. 출생담
4. 행적담
5. 죽음 및 사후담
6. 전승 집단의 의식
7. 결론

1. 서론

김통정(金通精)은 고려 삼별초군 장수의 하나로 원종 12년(1271) 삼별초의 난 때 진도에서 패한 삼별초의 무리를 이끌고 제주에 입도하여 여·몽연합군에 대항하다 원종 14년(1273) 생을 마감한 역사적 인물이다. 사서(史書)에서는 그를 당대 체제에 저항한 반역적 인물로 규정하였고, 다른 기록은 거의 없다.

그러나, 제주도에서는 설화 속에 영웅적 인물로 형상화되어 풍부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구비전승되고 있다.

김통정 전설은 ‘삼별초의 난’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삼별초의 우두머리였던 실존 인물 김통정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해 낸 민중의 창작물이다.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충청북도 금천중학교 교사

따라서, 김통정 전설을 살펴보는 것은 역사적 기록만으로는 구체화되지 않은 김통정이라는 인물을 재조명해 보고, 그에 대한 민중 의식이 설화에 어떻게 형상화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김통정 전설의 여러 유형을 일대기적 순서로 재구성하여 서사적 전개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부분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을 갖춘 설화는 출생, 수련, 행적, 죽음의 4단계로 진행되지만, 김통정 전설에는 수련담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여러 삽화 중 신이한 출생과 관련된 부분을 출생담, 신이한 능력과 업적을 발휘하는 부분을 행적담, 신비한 죽음과 그 이후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부분을 죽음 및 사후담의 3단계로 분류하기로 한다. 이러한 유형별 전승 양상을 통해 실존 인물인 김통정이 문학적으로 형상화되는 양상과 그 속에 담겨 있는 민중 의식을 파악해 보려고 한다.

김통정에 대한 전설은 모두 14편이 문헌에 수록되어 있다. 삼별초의 최후 항전지였던 제주도의 애월 지역을 중심으로 북제주군에서 주로 전승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자료는 <표 1>과 같다.

〈표 1〉 김통정 전설 자료

구분	전승지	제보자	자료 제목	수록 문헌
1	애월읍 고성리	강태연(남·64세)	김통정 장군	현용준, 『제주도전설』
2	제주시 용담2동	박승남	"	"
3	미 상	제주상업고등학교 학생 전승규	"	"
4	애월읍 고성리	김연(남)	"	"
5	애월읍 애월리	박길순(남·80세)	"	"
6	애월읍 광령리	고인훈 부친	"	"
7	애월읍 어음리	김승추(남·76세)	김통정(Ⅰ)	김영돈외, 『제주설화집성』Ⅰ
8	한림읍 옹포리	장덕기(남·76세)	김통정(Ⅱ)	"
9	애월읍 광령리	고용해(남·45세)	애기업개 말도 들어라	"
10	애월읍 고성리	강정(남·61세)	김통정 장군	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1	애월읍 고성리	김병수(남·82세)	갈구미(渴玖椀)	"
12	애월읍 수산리	고씨(남·78세)	희뿌리샘물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9
13	한경면 고산리	진용표	항바도리와 김통정	진성기, 『제주도전설』
14	안덕면 덕수리	이화옥(여·80세)	김통정 장군	현용준, 『한국구비문학대계』 9-3

2. 역사적 사실

김통정(金通精)에 대한 국내의 역사적 기록에는 『고려사』 세가(世家) 원종 조(元宗 條)와 열전(列傳) 제 17 김방경 조(金方慶 條), 제 43 배중손 조(裴仲孫 條)가 있다. 아울러 『고려사절요』 제 19권 원종(元宗) 순효대왕 조(順孝大王 條), 『동국여지승람』 제주(濟州) 고적 조(古蹟 條), 안정복의 『동사강목』 원종 조(元宗 條)가 있다. 중국의 사서(史書)로는 『원사(元史)』 권 208 열전(列傳) 제 95 외이(外夷) 1 탐라 조(耽羅 條), 고려 조(高麗 條), 『신원사(新元史)』 열전(列傳) 제 146 외국(外國) 1 고려 조(高麗 條), 『원고려기사(元高麗紀事)』 지원(至元) 6년 4월 28일 조(條) 등이 있다.

이 문헌사료들은 김통정을 주요 인물로 다루고 있지 않다. ‘삼별초의 난’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설명하면서 그에 대한 행적을 간단히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여러 문헌 사료를 바탕으로 김통정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¹⁾

김통정(金通精)은 고려 삼별초군 장수의 하나로 원종 12년(1271) 삼별초의 난 때 배중손이 진도에서 전사하자 삼별초의 남은 무리를 이끌고 제주에 입도하여 여·몽연합군에 대항하였다. 삼별초는 제주에 입거(入據)한 뒤 방어시설로 내외성(內外城)을 쌓고 해안지방을 약탈하거나 고을 수령을 죽이는 등 지속적인 해상활동(海上活動)을 펼쳤다. 원종(元宗) 13년 3월 원(元)에서는 고려 조정에 삼별초를 회유하게

1) 김상기, 『고려시대사』(서울대출판부, 1985), 484~488쪽 참조

하였다. 이에 고려 조정에서는 합문부사(閣門副使) 금훈(琴薰)을 역적초유사(逆賊招諭使)로 삼아 보내었으나, 실패했다. 그 후 원(元)은 다시 김통정의 조카인 김찬(金贊)과 오인절(吳仁節) 등 6인을 보내어 회유하게 하였으나, 김통정 등은 이에 응하지 않고 김찬을 머물러 두게 하고 그 이외의 일행은 모두 죽여 버렸다. 이러한 회유공작이 실패하자 원(元)과 고려정부는 김방경(金方慶)을 행영중군병마원사(行營中軍兵馬元使)로 삼고 원장(元將) 혼도·홍다구 등과 같이 여·몽연합군을 결성하여 제주의 삼별초를 토벌하기에 이르렀다. 원종(元宗) 14년 4월 28일 여·몽연합군은 삼별초의 내성(內城)과 외성(外城)을 함락시키고 삼별초의 무리를 토벌하였다. 이에 김통정은 그의 무리 70여명을 거느리고 산중으로 도망해 들어가고 나머지 무리들은 여·몽연합군에 항복하였다. 김통정은 후에 산중에서 시신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자결한 것으로 추정된다.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김통정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삼별초 군대가 진도에서 패하여 제주에 입도할 때 비로소 나타난다. 대체로 진도에서 패배한 삼별초의 무리를 이끌고 제주로 입도하여 3년간 여·몽연합군에 대항하였다는 행적이 주를 이룬다. 김통정은 삼별초를 이끌고 제주에서의 항몽활동을 주도했던 인물이지만 『고려사』열전 속에도 입전(入傳)되지 않았다. 그래서, 제주 입도 전의 활동이나 행적에 관한 기록은 없다. 그의 출생 연대나 성장 과정, 가계(家系)에 대한 내용 또한 찾아볼 수 없어 역사적 기록만으로는 그의 일대기를 추정하기조차 어렵다.

김통정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부정적이다. 『고려사』에서는 삼별초를 적(賊)으로 규정하였고, 김통정은 진도에서 패한 삼별초의 무리를 이끌고 제주로 들어가 갖은 패악을 저지르고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린 인물로 기록되어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반적들이 탐라에 들어가서 내성과 외성을 쌓고 그 험준함을 믿고 더욱 더 날뛰게 되었으며 때때로 나와서는 노략질을 하였으며 安南의 수령 孔楡를 붙잡아 가지

고 갔다. 이리하여 바닷가 지방은 소란하게 되었으며 반적들의 침입 범위는 京畿에까지 확대되었고 도로가 제대로 통하지 못하게 되었다. 왕은 그것을 심히 우려하여 14년에 김방경을 행영 중군병마원사로 삼아서 보냈다. …(중략)… 반적들의 우두머리 김통정은 그 일당인 70여명을 인솔하여 산중으로 도망해 들어갔고 …(중략)… 탐라의 주민들을 모두 평안히 이전처럼 안심하고 살게 하였다.²⁾

적(賊)이 진도로 들어가 마을에서 사납게 굴고 노략질하자 왕은 김방경에게 명하여 적을 토벌하게 하였다. 다음 해 김방경은 몽고군사 혼도 등과 함께 3군을 거느리고 적을 격파하였다. 적은 모두 처자식을 버리고 도망하였다. 적장(賊將) 김통정은 남은 무리를 이끌고 탐라로 들어가 숨었다. …(중략)… 적들이 탐라로 들어간 후 안팎으로 성을 쌓고 때때로 노략질을 하면서 고을을 횡행하였으며, 고을 수령을 살해하니 연해 지방에 인적이 드물었다.³⁾

적의 장수 김통정이 남은 무리를 데리고 탐라로 달아났다. …(중략)… 김방경을 중군병마원수로 삼아 원의 장수 혼도 등과 함께 탐라를 치게 하였다. …(중략)… 김방경, 혼도 등이 탐라를 쳐서 평정하였다.⁴⁾

위 기록을 바탕으로 할 때, 진도에서 패배한 삼별초는 제주를 최후의 본거지로 삼고, 마을에서 노략질을 하고 고을 수령을 죽이는 등 제주 사회를 혼란하게 하였다. 『고려사』 열전 김방경 5(條)에서 김방경이 삼별초를 물리친 후 탐라의 주민들을 이전처럼 편안히 살게 했다는 내용은 삼별초가 제주민

2) 『고려사』, 『열전(列傳)』 제 17 김방경(金方慶) 5(條). 賊入耽羅築內外城 時險益猖獗 時出虜掠 擒安南守孔楡 而去賓海蕭然 侵及京畿道路不通 王甚憂之 十四年 以方慶爲行營中軍兵馬元帥 遣之 …(중략)… 既而賊酋金通精 率其徒七十餘人 遁入山中 <중략> 其居民悉接堵如故.

3) 고려사, 열전(列傳) 제 43 배승손(裴仲孫) 5(條). 賊, 入據珍島, 剽掠州郡, 王, 命金方慶, 往討之, 明年, 方慶, 與蒙古元帥忻都等, 率三軍, 擊破之, 賊, 皆奔妻子遁 賊將金通精, 率餘衆, 竄入耽羅 …(중략)… 賊既入耽羅 築城內外 時出剽竊行州郡殺守宰 濱海蕭然.

4) 민족문화추진위원회 편, 『국역 동사강목』(서울 : 민족문화추진위원회, 1966), 136~144쪽.

들에게 해를 끼치는 세력이었고, 이를 김방경이 물리쳤음을 의미한다. 김통정을 적의 우두머리(賊酋)로 규정하는 데에서도 김통정에 대한 중앙 정부의 부정적 평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 사실로 간주되곤 하는 문헌사료는 관(官)의 명령에 따라 찬술되는 까닭에 역사 서술상 민중적 입장을 도외시한 이해와 해석을 가하곤 한다. 문헌사료는 중앙·지배층의 이해를 대변하며 민중에 의한 구비서사물이나 역사 인식을 배제하는 것이다.⁵⁾ 실제로 『고려사』는 조선 개국의 당위성을 내세우기 위하여 유가적(儒家的) 입장에서 쓰여진 것이다. 이 중 열전(列傳)은 황제나 왕을 제외한 인물 가운데 행적이 뛰어나고 모범이 되는 인물을 표창하고, 국가 권력에 대항한 인물을 폄하(貶下)하는 ‘포폄(褒貶)’의 기능이 있었다.⁶⁾ 따라서, 고려 정부에 저항한 삼별초를 역적의 무리로 간주하고, 제주에서 삼별초의 활동을 이끌었던 김통정에 대해서도 부정적 인식이 드러났을 가능성이 있다.

고려 정부에서 삼별초를 역적(逆賊)으로 규정하여 배척한 것과는 달리 제주민이 삼별초의 난을 바라보는 입장은 긍정 혹은 부정의 상반된 인식 양상을 보인다. 삼별초의 난을 긍정적으로 바라본 이유는 당대 지배층에 대한 제주민의 강한 저항감이 삼별초의 체제 저항적 성격에 부합되었기 때문이다. 12세기 이후 고려 정부의 권력이 제주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고려 정부는 제주민에게 일정한 세금을 징수하였다. 그런데, 고려 정부에서 파견된 지방관들의 과도한 세금 징수로 인해 제주민은 커다란 경제적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다음의 기록에서 그 면모를 찾아볼 수 있다.

제주도의 옛 풍속에 15세 이상의 남자는 매년 콩 1斛을 바치고 아문(衙門)의 아전 수백명은 매년 말 한 필씩을 바쳤다. 이를 부사와 판관이 거두어 나눠가지니, 이

5) 오대혁, 「金通精 관련 서사물에 투영된 역사인식」, 『東阮論集』 10(서울: 동국대학교대학원, 1997), 58쪽.

6) 주명희, 「삼국사기 열전의 소설사적 위상」, 『고소설사의 체문제』(집문당, 1993), 405~420쪽.

때문에 이 고을을 다스리는 자는 가난한 자라도 모두 부자가 되었다.⁷⁾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고려 정부에서 파견된 지방관들은 제주에서 탐학을 일삼아 부를 축적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관행(慣行)은 제주민에게 고려 정부에 대한 반발감을 형성하였고, 당시 고려 정부에 저항하여 난을 일으킨 삼별초의 체제 저항적 성격에 부합하는 계기가 되었을 수 있다. 제주민이 고려 정부를 배척하고 삼별초에 대해 호의적이었음은 다음의 기록에서도 엿볼 수 있다.

홍다구는 원나라 황제에게 김통정의 친척이 개경에 있는 자가 많으니, 이들을 통하여 회유해 보다가 듣지 않으면 그 때 군력(軍力)으로 쳐도 늦지 않을 것이라 주청하여 재가를 얻고 김통정의 조카인 김영⁸⁾ 등 7명을 전라도에서 찾아 김통정을 회유케 하였으나 김통정과 탐라국의 성주 등은 이에 응하지 않고 김영만을 머무르게 하고 그 이외는 모두 죽였다.⁹⁾

이에(金須, 高汝霖 등이) 주야로 성보(城堡)를 쌓고 병기(兵器)를 설치하여(삼별초군이) 울 만한 길을 막아 방어하고자 하였으나 토착민(土着民)들이 요모조모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賊(삼별초)이 다른 길로 이른 것을 알아채지 못하였다. 시중(김수)이 평소 대의(大義)로써 사졸들을 지휘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모두 감격하여 용기 백배 다투어 싸움으로써 적(삼별초)의 선봉을 거의 죽였다. 그러나 토착민(土着民)들이 적(삼별초)을 뒷받침하였으므로 중과부적이 되었고 마침내 高將軍과 함께 전사하고 말았다.¹⁰⁾

7) 『고려사절요』, 17 고종 46년 10월 조

8) 『고려사』, 세가(世家) 원종(元宗) 13년 8월 조(條)에는 김통정의 조카를 ‘김찬(金贊)’으로 표기하고 있어 ≪원고려기사≫에 나오는 ‘김영(金永)’과 ‘김찬(金贊)’은 동명이인(同名異人) 듯하다.

9) 『원고려기사(元高麗紀事)』, 지원(至元) 6년 4월 28일 조(條). 茶邱因陳 高麗王京 多有通精親戚 可遣招誘 若不從命 則而軍力擊之不晚 事聞秦之命茶邱 於全羅道訪得通精姪金永等七人 使招通精 通精與本國星主等不從盡殺使命 惟留永.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제주의 성주는 김통정과 뜻을 같이 하여 고려 정부의 회유에 응하지 않았다. 또한, 제주의 토착민들은 고려 정부에 협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삼별초가 무사히 입도(入島)하도록 도왔다. 이는 삼별초의 체제 저항적 성격에 제주민이 호응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주민의 삼별초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전설에서 김통정을 민중 영웅으로 형상화시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삼별초의 패배는 제주민에게 이전보다 더 큰 피해를 안겨 주었다. 삼별초의 난이 여·몽연합군에 의해 평정된 후 고려 정부와 원나라에서는 각각 군사들을 제주에 남겨두고 제주의 민심을 평정하게 하였다. 다음의 기록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훈도는 몽고 군대 500명을 머무르게 하고 김방경도 역시 장군(將軍) 송보연(宋甫演)·중랑장(中郎將) 강사신(康社臣)·윤형(尹衡)으로 하여금 경군(京軍) 800명과 외별초(外別抄) 200명을 거느리고 머물러 진무(鎮撫)하게 하였다.¹¹⁾

제주민들은 전쟁의 폐허 속에 양국(兩國)의 군사들로부터 통치를 받아야 했다. 또한, 원나라는 제주를 일본 정벌을 위한 요충지로 삼고, 목호들을 파견하여 목축업을 실시하였다. 이 때부터 시작된 말(馬)의 조공은 원나라가 패망한 이후에도 지속되어 제주민은 이전보다 더 가혹한 세금 징수에 시달리게 되고 만다. 삼별초의 패배로 인해 빚어진 억압적 사회 분위기와 가혹한 경제적 시련은 삼별초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낳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김통정은 고려 시대 삼별초의 한 장수로서, 배중손이 사망한 후에 두각(頭角)을 나타내어 제주에서 삼별초의 대몽활동

10) 최해(崔海), 『김문정공묘지(金文正公墓誌)』, 『졸고천백(拙藁千百)』 1(서울 : 아세아문화사, 1972), 51~52쪽.

11) 『고려사』 『열전』, 제 17 김방경 조, 忻都留蒙軍五百, 方慶亦使將軍宋甫演·中郎將康社臣·尹衡, 領京軍八百外別抄二百留鎮.

을 이끌었던 인물임을 확인할 수 있다. 진도에서의 참담한 패배와 배중손의 사망은 처자식을 버리고 도망할 정도로 삼별초를 와해(瓦解)시켰다. 그러나, 김통정은 삼별초의 남은 무리를 규합하여 전열(戰列)을 가다듬고, 제주로 입도하여 내성과 외성의 이중 방어시설을 쌓아 여·몽연합군의 침입에 대비하는 등 강인한 의지와 뛰어난 장수로서의 능력을 보여준다. 사서(史書)에서는 그를 당대 체제에 저항한 부정적 인물로 그리고 있지만, 그의 간략한 행적을 놓고 본다면 뛰어난 장수였다고 평가할 만하다.

삼별초의 제주 입도와 여·몽연합군과의 전쟁은 외부 지역과의 왕래가 거의 없었던 제주민들에게 충격적인 역사적 체험이었을 것이다. 실제로 삼별초의 항쟁은 벼농사법, 누에고치, 도요법, 건축, 불교문화 등의 문물에도 영향을 주었다.¹²⁾ 삼별초를 이끌던 김통정이란 인물은 민중들에게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 관계를 떠나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었을 수 있다. 이러한 삼별초와 김통정의 영향은 김통정에 대한 전설을 전승시켰고, 전설 속에서 김통정을 신이한 능력을 지닌 영웅적 인물로 형상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김통정 전설을 통해 역사적 기록만으로는 알 수 없는 김통정의 모습을 재구(再構)하고, 김통정과 제주민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출생담

김통정에 대한 사서(史書)의 기록은 삼별초 군대가 진도에서 패하여 탐라에 입도할 때 비로소 나타난다. 그러나 그의 출생 연대나 성장 과정, 가계(家系)에 대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제주 입도 전의 활동이나 행적에 관한 기록 또한 나타나 있지 않다. 그의 불투명한 행적과 제주 입도 후의 활동상은 전설이나 당신본풀이로 재창조되어 전승되고 있다.¹³⁾ 김통정의 출생과 관련

12) 오대혁, 앞의 논문, 67쪽.

13) 김태희, 「체제저항적 인물담 연구」(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27~28쪽.

된 전설은 전체 이야기 14편 중 4편이 전해진다. 김통정의 어머니가 지렁이나 지네와 교통(交通)하여 김통정을 낳았다는 내용으로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고려 때, 한 과부가 살고 있었는데 날이 갈수록 허리가 점점 커져 가자 동네 사람들이 눈치를 채고 수군거렸다. 과부는 매일 저녁 문을 잠그고 자는데도 어떤 남자가 들어와서 같이 잠을 자고 간다는 사실을 털어놓았고, 동네 사람들은 그 남자가 찾아왔을 때 실로 몸을 묶어 두라고 일러주었다. 이튿날 저녁 과부는 남자의 허리에 몰래 실을 묶어 놓았는데, 날이 새어 보니 실은 창문 구멍을 통하여 밖으로 나가 노돏돌(下馬石) 밑으로 들어가 있었다. 과부가 노돏돌을 들어 보니 큰 지렁이 한 마리가 있었는데, 실이 그 지렁이 허리에 감겨 있었다. 과부는 지렁이가 자기와 잠자리를 한 사실을 알고는 징그러운 생각이 들어 지렁이를 죽여 버렸다.

그 후 과부는 옥동자를 낳았는데, 아이는 온몸에 비닐이 돌아 있고 겨드랑이에는 자그마한 날개가 돌아나 있었다. 과부는 이런 사실을 일체 숨기고 고이 아기를 길렀는데, 동네 사람들은 이 아이를 지렁이와 정을 통하여 낳았다하여 '지렁이 진'자 성(姓)을 붙이고 '진통정'이라 불렀다(혹은 지렁이 '질'을 음을 따서 '질통정'이라 불렀다고도 한다). 이 아이가 바로 김통정(金通精)인데, 성이 김씨로 된 것은 김씨 가문에서 '진'과 김(金)이 비슷하다 해서 자기네 김씨로 바꿔 놓았기 때문이다.¹⁴⁾

김통정 장군의 어머니는 중국 조정승의 딸이다. 처녀 때 별초당(別草堂)에서 공부하다가 그 자리에서 자곤 했는데, 밤에 어떤 남자가 출입하여 임신을 했다. 남자의 몸에 실을 묶어 둔 후 지렁이가 남자로 변하여 찾아오는 것을 알게 되었다.¹⁵⁾

옛날 부잣집에 점잖은 딸이 하나 있었는데, 잡인(雜人)이 들까봐 바다 가운데 별침당을 지어 살게 했다. 하루는 그 처녀가 아버지에게 밤에 잠을 자다보면 어떤 도

14) 현용준, 『제주도전설』(서울 : 서문당, 1976), 107~109쪽.

15) 현용준, 위의 책, 112쪽.

령이 와서 자고 간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자 아버지는 명주실을 주면서 밤에 그 사람이 오면 명주실로 허벅지를 졸라매라고 하였다. 다음 날 명주실이 골목에 있는 큰 돌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는 돌을 일으켜보니 명주실이 감긴 큰 지렁이 한 마리가 있어서 잡아 죽였다. 그 후 처녀가 태기가 있어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는 부랑아가 되었다.¹⁶⁾

김통정의 어머니가 처녀 때, 밤마다 청의동자가 와서 같이 잠을 자고 가더니 임신을 하였다. 동네 할머니들에게 청의동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명주실을 남자의 목에 감아두라 하였다. 다음 날 그 명주실을 쫓아가 봤더니 지네의 몸에 묶여 있었다. 그 후 김통정을 낳았는데, 지네와 정을 통하여 낳았다 해서 이름을 '통정(金通情)'이라 하였다. 원래 김통정의 성씨는 김씨가 아닌데, 그 동네에 김씨가 많고 김통정이 어릴 때부터 똑똑해서 김씨들이 자신들의 성을 붙여 주자고 해서 김통정이 되었다.¹⁷⁾

이러한 전설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어느 마을에 한 처녀가 살고 있었는데, 밤마다 어떤 남자가 와서 동침하고 갔다.
- 2) 처녀가 남자의 몸에 몰래 명주실을 묶어 두었다.
- 3) 다음날 실을 따라 가 보았더니, 지렁이(지네)에 실이 묶여 있었다.
- 4) 처녀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바로 김통정이다.

설화 속에 등장하는 영웅들은 고귀한 혈통이나 신이한 출생을 통해 보통 사람보다 우월한 능력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비범한 출생은 앞으로의 영웅

16) 현용준·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 9-3 제주도 서귀포시·남제주군편(서울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17) 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Ⅰ)』(제주 :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451~452쪽.

적 행적을 암시하고,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데 필연적인 근거를 마련해 준다. 위의 이야기에서 김통정은 지령이나 지네와 통정(通情)한 어머니에게서 출생한다. 밤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처녀 혹은 과부와 동침한 남자는 인간으로 화(化)한 지령이 혹은 지네이다. 인간으로 변신할 수 있는 지령이나 지네의 자식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김통정이 신이한 존재임을 상징한다. 이러한 비범한 출생은 김통정이 기이한 행적을 보일 것임을 암시한다.

이와 같이 인간이 아닌 이물(異物)과의 교통을 통해 태어난 인물이 신이한 능력을 갖게 된다는 ‘이물교혼삽화(異物交婚挿話)’는 ‘야래자형(夜來者型) 설화’의 근간을 이룬다. 야래자형 설화는 “어느 마을에 한 처녀가 살고 있었는데, 밤마다 정체를 모를 남자가 와서 동침을 하였다. 이를 기이하게 여긴 처녀는 명주실이 묶인 바늘을 도포자락에 꽂아 놓고, 다음날 실을 따라 가 보았더니, 굴 속에 지령이(뱀, 용, 금돼지, 산삼, 수달피 등)가 실에 묶여(죽어) 있었다. 그 후 태기가 있어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바로 누구다.”라는 식의 줄거리를 갖는 유형을 말한다. 이는 대개가 이물(異物)과의 교혼(交婚)을 통해 태어난 인물의 비범성, 신이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¹⁸⁾ 이는 김통정 전설에서 김통정의 어머니가 처녀 시절 사람으로 변신한 지령이나 지네와 교통하여 김통정을 낳았다는 내용과 대응된다.

김통정의 출생담은 야래자형 설화의 구조와 매우 유사하며, 그 중 지령이에 얽힌 탄생담과 관련된다. 역사적 인물로 지령이 탄생담과 관련된 최초의 인물은 견훤이다. 후백제를 건국한 견훤(甄萱)의 신이한 출생담은 견훤이 보통의 백성과는 다른 영웅적 면모를 지녔다는 점과 건국 사실의 정당성,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 삽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김통정의 출생담이 견훤의 출생담과 같은 시조신화적 성격을 보이는 것은 제주에 입도한 삼별초의 강한 영향력 때문이라 하겠다. 제주 입도 후 김통정은 지역민들에게 새로운 통치자로 받아들여졌고, 지역민들은 김통정을 새로운 통치자로 인정하기 위해

18) 김태희, 앞의 논문, 21쪽.

신성성과 당위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었다.¹⁹⁾ 이를 위해 아래자형 출생을 보이는 시조신화에서 출생담을 차용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견훤과 김통정은 ‘신이한 탄생-세계와의 치열한 대결-비극적 패배’라는 삶의 구조가 유사하다. 후백제를 건국한 견훤은 지령이의 아들로 태어나 혼란한 시기에 후백제를 건국하는 영웅적 업적을 이루지만, 결국은 왕건에게 뼈아픈 패배를 당하는 일생을 살아간다. 김통정 역시 지령이의 아들로 태어났고, 온몸에 비늘이 돌아있으며 겨드랑이에 날개가 돋은 기이한 인물로서 여·몽연합군에 맞서 싸웠으나 결국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고 만다. 또한, 전설에서 김통정의 어머니는 밤마다 찾아오는 남성이 지령이임을 알고 그 지령이를 죽이게 되는데, 이는 지령이 자식의 비극적 결말을 예견하는 장치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건국 영웅들이 대부분 영웅적 업적을 이루어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는 것과는 달리 견훤은 후백제를 건국한 영웅이지만, 세계와 치열한 대결을 벌이다 끝내는 패배하고 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김통정과 연관되기에 견훤의 출생담을 김통정 전설에 차용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이한 인물에 얽힌 지령이 출생담과 비극적 패배라는 서사 구조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연 지령이의 어떤 면모가 뛰어난 능력을 지닌 인물의 탄생과 비극적 죽음에 연관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지령이는 토룡(土龍) 혹은 지룡(地龍), 지룡자(地龍子)라 불리는 환형동물을 말한다. 말 그대로 ‘땅의 용’이라는 뜻으로 용(龍)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지령이도 용 될 꿈 꾸다’, ‘지령이가 용 되는 시늉한다’는 속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용은 상상의 동물로서, 예로부터 미래를 예시해주고 자연의 조화를 몰고 다니는 신적 존재로 인식하여 숭배의 대상이 되어 왔다. 용이 신성시됨에 따라 고대국가에서는 군주 탄생에도 용을 결부시켰는데, 백제 무왕은 연못의 용과 교통(交通)하여 탄생하였고, 탈해

19) 서대석, 『백제신화연구』, 『백제논총』 1(서울 : 백제문화개발연구원, 1985), 39~50쪽 참조.

왕은 용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었다.

지령이뿐만 아니라 지네 역시 용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용이 자신의 영역을 차지하는 동안 이를 지키기 위해 다른 신격과 다투거나, 자신이 머물던 곳을 떠나 승천할 때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하는 용사설화(龍蛇說話)는 후대로 가면서 ‘용→이시미→구렁이→지네’라는 신격의 변모를 보인다.²⁰⁾ 따라서, 지령이 혹은 지네와의 교혼모티프는 용신신앙(龍神信仰)을 바탕으로 형성된 용과의 교혼모티프의 한 변형이라 할 수 있다.²¹⁾ 즉, 용의 정기를 받은 인물의 탄생을 통해 신성성과 비범성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지령이나 용은 물과의 친연성이 매우 높은 동물들이다. 지령이는 온 몸이 축축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생존할 수 있고, 비가 오면 땅 속에서 기어나오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 용 또한 바다나 연못 속에 사는 수성(水性) 동물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옛부터 용은 농경사회에서 물을 관장하는 신으로 매우 중요한 신격으로 숭앙받고 있다. 농경의 풍요는 물과 깊은 관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견훤이나 백제 무왕이 지룡(地龍)의 아들이라는 것은 용의 아들이라는 말로서, 왕위를 이어받을 만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농사의 강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잠재적으로 부여받은 존재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²²⁾ 따라서, 김통정을 지령이의 아들로 형상화한 것은 농경사회를 기반으로 한 수신적(水神的) 성격의 소유자임을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수신으로서의 면모는 김통정이 고생한 마을 주민들을 위해 물이라도 실컷 마시라고 샘을 마련해 주는 내용의 다음 전설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는 물이 부족한 제주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김통정 장군은 토성을 탈출하면서 “제주도민을 고생시켰으니 물이라도 먹고 살 아라.” 하며 뚝(가죽으로 만든 신발)을 신은 발로 암반을 밟고 떠났다. 바위에 발자

20) 이지영, 「용사설화의 측면에서 본 <지네치녀> 설화 연구」, 『구비문학연구』 4(서울: 한국구비문학회, 1997), 94쪽.

21) 김태희, 앞의 논문, 22쪽.

22) 한미옥, 「백제 건국신화의 계통과 전승 연구」(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27쪽.

국이 패이고 그곳에서 금방 샘물이 솟아 나왔는데, 이 샘물을 장수물이라고 한다. 왜 신은 발로 밟았다 해서 ‘햇부리’, ‘햇자국물’이라고도 한다.²³⁾

이러한 지렁이의 신성성과 달리 지렁이는 연체동물로서 나약한 존재를 가리키는 동시에 인간심리 저변의 저항의식을 나타낸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속담이나 ‘비 오는 날 지렁이에게 오줌을 누면 고추가 붉는다.’고 민간에서 전해지는 말과도 같은 맥락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약함’과 ‘저항’의 공존이다. 왜냐하면 약자로서 복종과 순응의 길이 아닌 저항과 투쟁의 방식을 택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자아와 세계의 심각한 대결’을 낳게 되고, 결국 비극적 패배로 귀결되기 때문이다.²⁴⁾ 지렁이 탄생담의 주인공들이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세계와의 대결에서 패배하고 마는 것은 이러한 지렁이의 상징적 의미와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김통정의 출생을 이야기하는 전설 중 두 편의 전설에서는 김통정의 성명에 대한 유래를 밝히고 있다. 지렁이 혹은 지네와 ‘통정(通情)’하여 낳았다 해서 붙인 이름이고, 김씨 성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의 성을 따서 ‘김통정(金通情)’이라 하였다고 한다. 사서(史書)에서 김통정의 출생이나 가계에 대한 기록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고려사』 열전 ‘배중손’ 조에서 김통정의 이름을 ‘通精’으로 기록하고 있어, 지렁이와 정을 통했다는 의미의 ‘通情’이라는 이름과 그에 얽힌 출생담은 그를 영웅으로 형상화하기 위한 문학적 형상화였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이 지렁이에 얽힌 아래자형 출생담은 김통정의 시조신적 면모와 수신적 면모를 부각시켜, 그의 영웅적 행적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지렁이 교혼 모티프는 건훤의 출생담에서 차용한 것으로 보이며, 물이 부족한 제주 사회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수신적 면모가 크게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3) 제주도, 『제주도전설지』(제주 : 제주도, 1985), 217~218쪽.

24) 김태희, 「이물감용 탄생설화 연구」(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22쪽.

4. 행적담

장군 설화 속의 장군은 역사적 평가에 따라 성공한 장군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그 반대의 경우로 나뉘어 그에 적합한 행적담을 형성하게 된다. 행적담에는 장군에 대한 민중의 최종적인 인식과 평가가 반영되는데, 성공 혹은 실패한 장군이라는 역사적 평가를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도 있고, 민중의 입장에서 이를 주체적으로 재평가하여 긍정적 혹은 부정적 시각을 투영하는 경우도 있다. 대개는 실패한 장군이 성공한 장군에 비해 죽음의 과정이 더욱 자세하게 묘사된다.²⁵⁾ 이는 실패한 장군에 대한 민중의 안타까움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김통정 전설에서 김통정의 죽음은 사소한 실수에서 비롯되는데, 이 점이 그의 죽음을 더욱 안타깝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행적담은 주로 김통정의 신이한 능력을 부각시키는 내용이다. 재와 빛자루를 이용한 연막전술, 김방경이나 김방경 부하 장수들과 변신 대결, 지역민들을 위해 바위를 발로 밟아 만든 샘물 이야기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김통정의 행적은 당신본풀이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어 당신본풀이와 전설의 관련성을 더욱 깊게 한다. 김통정의 행적담은 내용별로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행적담의 유형

유형	서사적 전개 양상	이야기수
날개 혹은 비늘 이야기	날개가 돌아 있고, 온몸이 비늘로 덮여 있어 쉽게 죽일 수 없는 존재이다.	5편
전투 이야기	김통정을 잡으러 온 관군과의 싸움에서 신이한 능력을 보여준다.	6편
아기업개 이야기	아기업개가 적에게 무쇠성문을 여는 방법을 알려 주어 성이 함락되고, 김통정은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	5편
샘물 이야기	성을 탈출하면서 발로 바위를 밟아 샘물이 솟아나게 한다.	4편

25) 오세길, 「한국 장군설화 연구」(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23~24쪽.

내용별로 분류한 4가지 유형의 행적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날개 혹은 비늘 이야기

날개 혹은 비늘 이야기는 김통정의 몸에 날개나 비늘이 돌아있었다는 이야기로서, 모두 5편의 전설에 나타나 있다. 김통정이 태어날 때 온몸에 비늘이 돌아 있고, 겨드랑이에 날개가 돌아있었다고 하는 이야기하는 전설은 한 편뿐이다.²⁶⁾ 나머지 4편의 전설에서는 김통정과 관군의 전투 이야기에서 김통정이 관군을 피하기 위해 날아서 달아났다가, 온몸이 비늘로 덮여있어서 칼로도 찌를 수 없었다는 내용이 제시된다. 이를 통해 김통정의 몸에 날개와 비늘이 돌아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전설은 다음과 같다.

통정은 놀개(날개) 있는 사름이난(사람이니까) 확(재빨리) 떠난 확 과탈 가고 과탈도에 가 붙엇어(머렸어). 잡을 수 읍는(없는) 장수난개(장수니까). 놀개 들고 비늘 돋은 장수난(장수니까).²⁷⁾

성문이 무너지고 고려군사들이 쳐들어 오자 위협을 느낀 김통정 장군은 쇠방석을 비양도 앞바다로 던졌다. 쇠방석이 바다 위에 뜨자 김통정은 날개를 벌려 날아가 쇠방석 위에 앉았다. 김통정 장군은 태어날 때부터 온몸에 비늘이 덮혀 있어서 칼로는 죽일 수가 없었다.²⁸⁾

겨드랑이에 날개 돋은 아이가 태어났다가 불행하게 죽은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분포된 ‘아기장수’ 전설의 유형에 해당한다. 김통정의 몸에 돌아있었다는 날개는 아기장수 전설에서 보이는 아기장수의 징표에 해당한다. 아기장

26) 현용준, 앞의 책, 107~109쪽.

27) 김영돈·현용준·현길언, 앞의 책, 35쪽.

28) 제주도, 앞의 책, 217쪽.

수 전설은 수많은 이형태가 존재하고 있지만, 이를 포괄할 수 있는 기본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1) 평민출생 모티프- 가난한 평민의 집에 '아기장수'가 태어났다.
- 2) 날개, 천장 모티프- 아기장수는 겨드랑이에 날개가 달리고 방 안에서 날아다니며 천장에 붙기도 하였다.
- 3) 부모 죽음 모티프(1차적 죽음)- 역적이 될까 봐서 부모가 죽었다.
- 4) 곡식 군사 모티프- 같이 묻어 준 곡식이 군사가 되었다.
- 5) 관군 죽음 모티프(2차적 죽음)- 소식을 듣고 찾아온 관군이 어머니의 말을 듣고 다시 아기장수를 찾아가 죽었다.
- 6) 용마(龍馬) 죽음 모티프- 그 후 용마가 나와서 울다가 죽었다.²⁹⁾

김통정 전설은 아기장수 전설과 매우 흡사하다. 아기장수의 징표인 날개나 비늘이 돌아 있다는 점이나 지배층과의 대결에서 비극적 죽음을 맞이한다는 서사 구조가 일치한다. 설화 속에 등장하는 아기장수는 허구적 인물이 대부분이지만, 김통정처럼 역사적 인물인 경우도 있다. 반역의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죽은 김덕령, 반역을 도모하다 처형당한 김자점 역시 아기장수의 모습으로 형상화된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당대 체제에 저항한 반역적 인물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아기장수 전설이 반역적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는 전설에 혼용되어 나타나는 양상은 아기장수 전설이 갖는 몇 가지 특징 때문이다. 아기장수의 상징적 의미인 '반역', '신이한 출생-비범성의 노출-세계와의 대결-비극적 좌절'로 도식화할 수 있는 서사 구조, 겨드랑이의 날개나 비늘 모티프가 그것이다.

아기장수 전설이 역사 인물 전설에 결부되는 경우는 보다 합리적이고 가능한 이야기로 변형이 이루어진다. 아기장수 전설에서 아기장수는 성장하기

29) 최래옥, 『한국구비전설의 연구』(서울 : 일조각, 1981).

도 전에 죽임을 당하는 반면, 역사적 인물일 경우에는 죽음이 성장 이후로 연기된다. 또한, 아기장수 전설은 지배층과의 치열한 대결을 보여주지 않지만, 역사적 인물일 경우에는 기득권 세력에 적극적으로 항의하며 갈등 양상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더 나아가 아기장수의 죽음 뒤에 나타나는 용마(龍馬)의 출현도 없다.³⁰⁾ 김통정 전설 역시 일반적인 아기장수 전설의 유형과는 달리 부분적인 변형을 보이고 있다.

우선, 김통정 전설에는 1)의 출생 모티프에서처럼 가난한 평민 집안에서 태어난다는 언급은 없다. 과부 혹은 정승집 딸이 지령이와 교통(交通)하여 출생하였다고 하여 아기장수의 탄생보다 훨씬 더 신비롭게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출생 모티프는 김통정의 비범성, 신이성을 더욱 부각시키기 위한 설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제주도의 다른 아기장수 전설에서는 “사뭇 가난하여 구덕 하나에 머리를 따로 하여 놓고 … 물길러 가서”³¹⁾와 같이 가난한 평민 집안에서 아기장수가 탄생하였음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2)의 날개 모티프는 아기장수 전설에서 핵심 모티프라 할 수 있다. 김통정 전설에서 역시 김통정은 태어날 때부터 겨드랑이에 날개가 돋아있고, 온몸에는 비늘이 돋아 있었다고 한다. 자라면서 그는 하늘을 날며 도술을 부리는 등 비범한 능력을 보인다. 이는 아기장수가 어렸을 때 방안을 날아다닌다거나, 심부름을 시키면 날아서 다녀오므로 신발에 흙이 묻어 있지 않고 매우 빠르게 일을 처리한다는 이야기와 대응된다. 이러한 날개 모티프는 김통정 전설의 대부분에 나타나 있다. 전설에서 이 날개는 김통정이 신이한 능력의 소유자임을 상징하는 동시에 영웅적 활약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 전설에서 김통정은 김방경을 비롯한 관군과 몽고군에 대항하여 대결을 벌이다가 전세가 불리해지자 바다에 무쇠 방석을 던지고 그 위로 날아가 앉는 기이한 행적을 보인다. 또한, 날개가 돋아 있으므로 성 위에서 뛰어내릴 수 있었는데, 뛰어내리면서 밝은 바위에서 샘물이 솟아난다는 전설의 증거를 만들어내고 있다.

30) 김태희, 「체제저항적 인물담 연구」(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32~34쪽.

31) 현용준, 『한국구비문학 대계』 9-3, 서귀포시 53. <날개 돋은 강정 김씨 자손>.

3)과 4)의 모티프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아기장수 전설에서 부모나 친지, 동네 사람들은 날개 돋은 아이가 탄생한 것을 알고 역적이 될 것을 두려워하여 날개를 자르거나 어린 아이를 죽인다. 아기장수와 가장 가까운 부모가 아기장수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부정적 인물로 등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김통정은 과부인 어머니의 도움으로 무사히 1차적 죽음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날개 달린 장수가 죽음을 모면하는 이야기는 제주도 전설에 나타나는 특이한 변이형으로서 본토의 전설과는 사뭇 다르다. 제주도의 날개 달린 아기장수는 부모의 도움으로 생명을 보존하거나, 날개만 제거당한 채 장수가 아닌 힘이 센 장사로서 일생을 살아간다. 이는 제주도가 지역상 수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기에 중앙정부의 통제와 위협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며,³²⁾ 제주 사람들의 아기장수에 대한 긍정적 시각과 현실에 대한 저항 의식은 물론 삶의 진지성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³³⁾ 구좌면 김녕리에서 전해지는 ‘한연 한배임재’ 전설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구좌면 김녕리에 있는 ‘거육대우영’이라는 한씨묘(韓氏墓)는 장군의 혈을 지닌 낭공혈(螻蛄穴)이다. 이 묘를 쓴 후 밤마다 소란이 있자 동네에서는 惡將軍之墓라고 돌에다 새겨 세우고는 묘의 영기를 눌렀다. 그 후 김녕 한씨 집안에서는 이 묘의 영기를 받은 아이가 태어났는데 보통 아이와 품모가 달랐다. 구덕에 눕혀둔 아이가 눕혀둔 채로 있지 않자 어머니는 몰래 방문을 들여다 보았다. 아이는 겨드랑이에 돋은 날개를 펴고 천장을 날아다니고 있었다.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아버지에게 알리자, 아버지는 관가에서 알면 역적으로 몰려 3족이 멸한다고 생각하여 손가락을 불에 달궈 날개를 지저버렸다. 그 후 아이는 조용했지만 남달리 힘이 세어 큰 배를 지어 고기도 낚고 장사도 했다. 사람들이 ‘한연 한배임재’라고 불렀는데, 힘이 남달리 세어 수적(水賊)을 만나도 수적의 간장을 서늘하게 하여 수적을 오히려 도망가게 했다. 한 번은 육지사람 50명이 닻을 운반하는 것을 보고 혼자 거뜬히 운반해 내

32) 김태희, 앞의 논문, 37쪽.

33) 현길연, 『제주도의 장수설화』(서울 : 홍성사, 1981).

니 이를 보고 관가에 역적이 났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진상(進上)을 잘 하는 한연 한배임재인 줄을 알고 오히려 후한 상을 주었다.³⁴⁾

일반적인 아기장수 전설에서 부모나 친지, 동네 사람들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민중 영웅인 아기장수를 죽여 민중의 잠재성을 거세해 버리는 부정적 인물로 등장한다. 특히, 아기장수의 어머니는 아기장수의 비범함을 최초로 발견하고, 이를 ‘반역’의 가능성으로 인식하여 아기장수를 죽이는 비정한 어머니로 등장한다. 어머니가 직접 아이를 죽이지 않는 경우라도 아기장수의 비범함을 남편이나 동네 사람들에게 발설하여 아기장수가 죽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다. 만약, 아기장수가 무사히 성장하여 관군과 대치하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에는 아기장수의 비밀을 발설하여 관군이 아기장수를 죽이도록 하는 부정적 역할을 수행한다.³⁵⁾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자식을 죽이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전설의 비극성은 더욱 고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김통정 전설에서 김통정의 어머니는 아이의 비범함을 일체 누설하지 않고 아이를 길러내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한다. 김통정은 어머니의 보호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고, 날개와 비늘과 같은 비범성을 온전히 보전할 수 있었다. 그 결과 훌륭한 장수로 성장하여 신이한 행적을 이룰 수 있었다. 김통정의 어머니가 아이의 비범함을 알고 이런 사실을 일체 숨겼다는 것은 그 비범함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김통정의 어머니는 아이의 ‘반역’ 가능성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김통정의 어머니는 날개 달린 영웅을 보호하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려 했던 제주 민중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시대를 개혁할 수 있는 인물에 대한 제주 민중의 긍정적 관점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러한 인물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더 나은 세상에 대한 염원을 표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4) 현용준, 『제주도전설』(서울 : 서문당, 1976), 185~191쪽.

35) 이보라, 「아기장수 전설 연구-어머니의 부정적 역할을 중심으로」(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10~36쪽.

5)의 관군 죽임 모티프는 장성한 아기장수가 관군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비극적 최후를 맞이하는 내용이다. 여기에서도 어머니는 아기장수의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아기장수 죽음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다. 어머니가 아기장수의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아기장수와 관군과의 대결은 극적으로 전개되지 않는다. 아기장수는 타인의 결정적 실수로 자신의 뜻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민중들은 아기장수의 영웅적 활약에 대한 기대가 좌절되며, 동시에 아기장수를 죽게 한 어머니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게 된다. 그러나, 김통정 전설에서는 더 이상 어머니가 등장하지 않는다. 또한, 관군과의 대결이 더욱 자세하고 극적으로 형상화되어 나타난다. 일반적인 아기장수 전설에서 아기장수는 신이한 능력을 발휘하는 데 반해 관군은 아기장수를 죽이는 방법을 몰라 찢쩍매다가 어머니의 도움으로 아기장수를 징치한다. 그러나, 김통정 전설에서 관군은 김방경 장군이나 김방경 장군의 부하장수로 설정되며, 이들은 새나 모기로 변신할 수 있는 신이한 존재로 등장한다. 김통정과 김방경의 변신 대결은 <동명왕신화>에서 해모수와 하백의 싸움이나, <김수로왕신화>에서 수로와 석탈해의 싸움과 같은 변신대결담의 면모를 보인다. 이러한 대결 양상은 '전투 이야기'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6)의 용마 모티프는 김통정 전설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애월읍 어음리에서 전해지는 김통정 전설에서는 김통정이 아무도 잡지 못하는 말을 잡게 되는 경위가 자세하게 드러나는데, 이 말은 아기장수 전설에 나타나는 용마의 성격과 유사하다.

김통정이라는 사람은 중국의 대신이다. 그 때, 제주도에는 말이 하나 났는데, 이 말은 사람을 상대하지 않는다. 한라산에서 물을 먹다가 어두우면 장우리³⁶⁾란 데 와서 물을 먹고 큰 소나무에게 등을 비비며 소리를 한 번 지르면 천지가 진동했다. 그

36) 한라산 북동쪽 중턱에 위치해 있는 962m의 봉우리. 제주시 봉개동 지경의 최남단이며, 이 봉우리에 고인 물은 그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깊다고 함. 만일 이 물이 넘치는 날이면 제주도 온 섬이 물에 잠기게 된다고 함. 이곳에 거인 설화의 주인공 '실문대할망'이 빠져 죽었음. 가뭄이 들 때 이곳에서 기우제를 지내면 효험이 있다고 전해짐.

소리가 중국까지 들렸다. 중국 천자는 望月樓에서 달구경을 하다가 그 소리를 듣고는 만조백관들에게 소리의 출처를 물었다. 신하들은 제주도에서 나는 소리라고 하였다. 그래서 제주에서 이 말을 잡아올 사람을 정하는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이 때 김통정이 나서서 말을 잡아오겠다고 하였다. 김통정이 제주에 와서 사람들에게 이 말이 어떤 말인지를 물었다. 사람들이 말하길 이 말은 사람을 보면 피해 버리고 저녁이 되면 장우리에 와서 물을 먹고 소나무에다가 모가지를 비비며 우는데 그 소리가 천하를 진동하게 한다고 하였다. 김통정은 달이 흰한 밤에 장우리란 곳을 찾아가 소나무 아래에 숨어서 말을 기다렸다. 저녁이 되자 숲 속에서 말이 머리와 갈기를 바짝 세우고 나와서 장우리 물을 먹고 소나무에 와서 모가지를 비벼댔다. 그때, 김통정이 말의 모가지를 붙잡자 말이 놀라 벌떡 뛰었다. 김통정이 “내가 임자다”라고 말하자 그 말이 가만히 섰다. 그 말을 타고 시가로 내려왔다.

위 전설에 따르면, 이 말은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장우리라는 산봉우리에 고인 물만을 마시며 사는 신성한 말이다. 또한, 소리를 한 번 지르면 천하가 진동하여 중국에까지 들릴 정도로 비범한 말이다. 아무도 이 말을 잡지 못했지만, 김통정이 말을 잡고 자신이 임자임을 밝히자 순순히 응했다는 것은 말이 자신의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고, 김통정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 말은 또한 조화를 부리기까지 하여 김통정의 장수로서의 활약을 돕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젠 중국에서는 이놈의(이놈의) 사신을 보낸디 아이오거든(아니오거든). “아, 요 새끼가 역적이구나.” 이걸 잡을라고 멧늬(멧 늬) 오라도 안 돼거든. 왜 안 돼냐 흐며는 그 늬의 물(말)이 조화를 부리는 물인디. 물꽂지에 빗츄룩(빗자루) 식꺄(세 개를) 돌아매영(달아매어) 재를 그레(그리로) 확흐게(쩍싸게) 감추어(감추어) 노양(놓고) 황바두리 토성을 짹 흐번(한 번) 돌민(돌면), 온 제주도가 으남지어 불어(안개끼듯 자욱하게 되어 버린다.) 그냥 안개. 배는 오당(오다가) 가불억(가버리고) 가불억. 통정을 잡을라고 오당 가불곡 가불곡, 왓왓흐니(감감하니) 어덜 거여???)

위 전설에서 김통정이 이 신비한 말을 잡아탔다는 것은 김통정의 비범한 능력을 말해 주는 것이며, 김통정의 영웅적 활약을 더욱 부각시키기 위해 삽입한 화소리 할 수 있다. 이는 아기장수 전설에서 아기장수의 탄생과 죽음에 함께 출현하여 아기장수의 비범성과 장수로서의 잠재성을 부각시키는 용마 모티프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김통정 전설은 일반적인 아기장수 전설의 서사 구조와 유사하면서도 제주 지역 아기장수 전설의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김통정은 비범한 능력을 지닌 민중 영웅적 자질을 지니고 있었으나, 결국 비극적 최후를 맞이한다는 점에서 본토의 아기장수 전설과 유사한 서사 구조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김통정의 어머니가 아이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고 키운다는 점은 사회가 전적으로 거부하는 인물을 수용하는 제주의 아기장수 전설적 특성을 보여준다. 더불어 김통정은 날개나 비늘이라는 아기장수의 징표가 전혀 훼손되지 않은 채 성장함으로써 영웅으로서의 잠재성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2) 전투 이야기

전투 이야기는 김통정을 잡으러 온 관군이나 몽고군과의 대결 상황에서 신이한 능력을 발휘한다는 이야기로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 1) 김통정은 관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항파두리에 만리토성을 쌓았다.
- 2) 김통정은 백성들에게 세금을 받되 돈이나 쌀이 아닌 빗자루와 재를 거두어 들였다.
- 3) 김통정은 성 위에 재를 뿌리고 말 꼬리에 빗자루를 매달아 달리면서 안개를 일으켜 있는 곳을 분간하지 못하게 했다.

- 4) 김통정은 성이 함락되자 바다에 무쇠 방석을 던져 띄워놓고 그 위로 날아가 앉았다.
- 5) 김방경 장수의 부하들이 새와 모기로 변하여 김통정을 쫓아갔다.

1)의 내용은 삼별초의 난 때 쌓은 것으로 현재까지 남아있는 ‘항파두리’ 토성의 유래를 밝히는 내용이다. 전설은 역사적 사실을 바탕을 하여 구성되기도 하고, 자신의 사실성·진실성을 보강하기 위해 역사와 결합하기도 하기 때문에 역사와 관련이 깊다. 전설이 증거물을 근거로 이를 설명하기 위해 형성되는 경우에도 전설은 역사와 결합되어 사실성과 진실성을 보장받게 된다.³⁸⁾ 항파두리 토성 역시 삼별초의 난이라는 역사적 사실과 실존했던 김통정 장군과 결부된 역사적 증거물이다. 김통정이 항파두리 토성을 쌓았다는 전설은 여러 편 전해진다.

삼별초의 장군 김통정은 조정의 장군 김방경에게 쫓기어 진도를 거쳐 제주에 들어와 황바도리에 陳을 쳤다. 김통정은 흙으로 성을 쌓고 대궐을 건축하여 ‘항파성’이라 칭하니, 그 위엄이 耽羅에 가득찼다. …(중략)… 제주 삼읍(대정, 모관, 정의)은 모두 돌로 쌓은 것이었다. 황바도리는 유일한 土城이었다.³⁹⁾

옛날 삼별초 난리 때 김통정 장군이 함덕(咸德)이라는 데서 고려군, 몽고군과 싸우다가 그만 함덕을 뺏기고 서쪽 애월면 고성리(古城里)에 와서 토성(土城)을 쌓고 그 지방을 지키고 잇었수다(있었습니다). 이 토성을 쌓는 디 석 돌(달) 열흘이나 걸렸다고 합니다.⁴⁰⁾

김통정은 도민들을 동원하여 토성(土城)을 쌓았다. 내성(內城)과 외성(外城)을 쌓

38) 최운식, 『한국 설화 연구』(서울 : 집문당, 1991), 87쪽.

39) 진성기, 『제주도전설』(서울 : 백록, 1992), 262쪽.

40)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9』 전라남도·제주도편(서울 : 평민사, 1994), 204쪽.

는데 오랜 시일이 걸렸고⁴¹⁾

위 전설에 따르면, 진도에서 패배한 삼별초의 잔여 세력은 김통정의 지휘 하에 제주에 입도하였고, 여·몽연합군에 대항하기 위하여 방어시설을 쌓았다. 삼별초에 의한 방어설비는 지휘부가 들어선 향파두(缸波頭)의 내·외성, 해변 애월포의 성곽, 제주 해안을 둘러싼 장장 3백 여리의 장성(長成)을 들 수 있다. 그 중 삼별초의 중심적 방어 시설은 제주 애월 방면에서 내륙쪽으로 들어서 있는 향파두리성이다.⁴²⁾ 이에 대하여 『동국여지승람』 제주 고적조(古蹟條)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缸波頭古城：州 서쪽 40리에 있다. 성 안에 샘이 있는데, 큰 가물에도 마르지 않는다 … 김통정이 삼별초를 이끌고 貴日村 缸波頭里에 來據하여 이 성을 쌓고 항거한 곳인데 김방경 등이 進攻하여 함락하였다.

김통정이 여·몽연합군에 대비하기 위하여 성을 쌓았다는 내용은 『고려사』 열전 배중손 조(條)의 “賊旣入耽羅 築城內外”, 김방경 조(條)의 “賊入耽羅築內外城”에도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적(賊)’은 삼별초를 일컫는 것으로 이들이 제주도로 들어가 내성과 외성의 이중 방어시설을 쌓았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삼별초의 축성은 진도에서도 행해졌다. 삼별초는 진도에 입거한 후 용장성(龍藏城)을 쌓고 궁전을 크게 영조(營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세력과 활동이 매우 왕성하여 남해(南海)·창선(彰善)·거제(巨濟)·제주(濟州) 등을 비롯하여 30여島가 해상왕국의 영역이 되었다.⁴³⁾ 삼별초의 축성과 해상왕국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김통정 전설에서도 나타나 있다.

41) 제주도, 앞의 책, 217쪽.

42) 윤용혁, 『고려 삼별초의 대몽 항쟁』(서울: 일지사, 2000), 234~236쪽.

43) 김상기, 앞의 책, 478~479쪽.

김통정은 군사상 적지를 찾아 산 쪽으로 올라가다가 항바들이(지금의 애월면 고성리)를 발견하고 여기에 토성(土城)을 쌓았다. 흙으로 내외성(內外城)을 두르고 안에 궁궐을 지어 스스로 '해상왕국'이라 한 것이다.⁴⁴⁾

이와 같이 역사적 사실이 김통정 전설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다는 것은 김통정 전설이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형성되었음을 말해 준다. 따라서, 김통정 전설은 그 신빙성이 매우 높아 역사 자료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김통정과 관련한 역사적 증거물을 제시하는 전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도 전해진다.

김통정 장군이 활을 쏜 자국이 지금도 고성리엔 남아 있다. 거기에는 화살도 박혀 있었는데, 약 20년 전에 누가 그 화살을 빼어 가 버렸다고 한다.⁴⁵⁾

김통정은 잘 싸웠으나 중과부적이었다. 그는 추자로 도망쳤다. 김방경이 곧 뒤쫓아와 김통정은 살해되었는데, 지금도 그 때의 김통정의 재 위에 찍혀진 발자국이 고성으로 가는 길 돌담 위에 확연히 남아 있다 한다.⁴⁶⁾

위 전설에서와 같이 삼별초의 최후 항전지였고, 지휘부의 거점이었던 애월읍 고성리에 김통정이 쏜 화살 자국이나 발자국이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은 항파두리성의 유래를 밝히는 것과 같이 증거물을 역사와 결부시키려는 면모를 보여 준다.

김통정이 항파두리성을 쌓던 당시 민중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전설도 전해진다.

44) 현용준, 앞의 책, 109쪽.

45) 현용준, 위의 책, 114쪽.

46) 진성기, 앞의 책, 262~263쪽.

김통정 장군이 백성을 시켜 토성을 쌓을 때는 몹시 흉년이었다 한다. 그래서 역군들이 배가 고파 인분을 먹었다. 자기가 쭈그러 앉아 똥을 싸고 돌아앉아 그것을 먹으려고 보면, 이미 옆에 있던 역군이 주워 먹어 버려 제 똥도 제대로 먹지 못하였다 한다.⁴⁷⁾

이 토성(土城)을 쌓는 전년(前年)에는 흉년(凶年)이 들어서 백성들은 목을(먹을) 양식이 없어서(없어서) 점심커녕 아침도 뵤뵤히(뵤뵤히) 묵지 못했다고 합니다. 土城을 쌓라고(쌓으려고) 땅을 파면 지렁이나 딸벌레가 나오는데 이런 지렁이나 딸벌레를 심어서 묵음서(먹으면서) 쌓다고(쌓았다고) 합니다.⁴⁸⁾

위 전설은 김통정이 성을 쌓던 때는 극심한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렸다고 하는 것은 당시 제주민들의 고충을 반영한 것이다. 백성들이 배가 고파 자신의 인분을 먹거나 지렁이와 벌레를 잡아먹기까지 했다는 것은 당대의 상황을 치열하게 표현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사실 삼별초군 입거 이후 항파두성과 같은 대규모 방어설비 공사에 제주민의 동원은 불가피하였을 것이다.⁴⁹⁾ 전설은 이 과정에서 빚어진 삼별초와 제주민의 갈등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의 내용은 김통정과 제주민의 긍정적 관계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김통정은 백성들에게 돈이나 쌀과 같은 세금을 받지 않았다고 하였다. 대신 백성들의 집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채와 빗자루를 거두어 들였다. 이는 김통정이 3)의 내용과 같이 전술(戰術)에 이용하기 위해서라고 전설은 말한다. 김통정이 채와 빗자루를 거두어들였다고 하는 내용은 김통정의 행적이 그려진 많은 전설에서 이야기된다.

김통정 장군은 백성들에게 세금을 받되 돈이나 쌀을 받지 아니하고, 반드시 재(灰)

47) 현용준, 앞의 책, 114쪽.

48) 임석재, 앞의 책, 204쪽.

49) 윤용혁, 앞의 책, 270쪽.

닷 되와 빗자루 하나씩을 비축해 두었다가 토성 위를 빙 돌아가며 재를 뿌렸다.⁵⁰⁾

제주도민에게 재(灰)을 공출시켜 토성위를 빙 돌아가며 뿌리고는 말꼬리에 빗자루를 달아매어 채찍질을 가해 성위를 달렸다.⁵¹⁾

그는 백성들에게 한 사람마다 재 다섯 되와 비 한 자루씩을 바치게 하여 성위에 끌고루 재를 뿌리게 하였다.⁵²⁾

김통정 장군은 병사들과 주민 보고 마을 집집에서 재를 모아다가 토성(土城) 위에(위에) 두 자 두께로 재를 깔으라 하고 남은 것은 성 밑에 깔으라고 했수다(했습니다).⁵³⁾

특히, 다음 전설에는 김통정이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들이지 않은 것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강하게 드러나 있다.

(김통정이) 백성덜을 모여서 흐는 말이, “당신네 경(그렇게) 서월러래(서울로) 진상 바찌곡(바치고) 흐지 말라. 나가 여기에 책임 맡겠다.”고 책임이민 단지 여기에는논이 이시난(있으니까), 그 때 나룩(벼)이란 거 어려왓지게(어려웠지요). 나룩이 어려우니게(어려우니까) 통정이가, “거, 나룩 멧판이영(멧 마지기) 그자(그저) 나 먹으민(먹으면) 말 거고 세금은 빗츠룩(빗자루) 섯 흐곡셧(하고) 재 훈 뉘(한 되). 모든 백성 이것만 해 오라.” 백성들이 편안(편안)하기를(편안하기를) 무신(무슨) 세금 물랜(물라고) 아니(아니)하곡(아니하고), 그자 재 훈 뉘 흐곡 빗츠룩 식 개. 대죽(수수) ㄱ라(갈아) 노민(놓으면) 저까짓것 흐를(하루에) 멧개라도(멧 개라도) 맨들아(만들어).⁵⁴⁾

50) 현용준, 앞의 책, 109쪽.

51) 제주도, 앞의 책, 216쪽.

52) 진성기, 앞의 책, 262쪽.

53) 임석재, 앞의 책, 204쪽.

54) 김영돈·현용준·현길언, 앞의 책, 34쪽.

위 전설에 따르면, 김통정은 백성들에게 서울 즉, 정부에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한다. 제주의 지질적 특성상 현무암 토질로 인해 재배하기 힘들었던 벼 역시 바치지 않도록 한다. 대신 그저 집에서 구하기 쉽고 만들기 쉬운 채와 빗자루만을 바치도록 한다. 여기에서 ‘채와 빗자루’는 돈이나 쌀과 같은 ‘가혹한 세금’에 반대되는 의미를 지닌 매개체로 보인다. 이는 전설에서 백성들이 채와 빗자루만 바치면 그만이고, 더 이상 세금을 바치지 않아도 되어 편안하게 되었다고 한 데서 알 수 있다. 백성들에게 채와 빗자루는 돈이나 쌀과 같은 세금의 의미가 아닌 것이다. 여기에서 김통정은 세금을 면해주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긍정적 인물로 평가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주민의 세금에 대한 부담감은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제주가 고려 정부의 통제를 받기 시작하면서 정부는 제주민에게 일정한 세금을 징수하였는데, 고려 정부에서 파견된 지방관들의 과도한 세금 징수는 제주민에게 커다란 경제적 부담과 함께 정신적 어려움을 주었다. 다음의 기록에서 그 면모를 찾아볼 수 있다.

判禮賓省事 羅得瓚을 濟州副使로 삼았다. 이에 앞서 宋瓘가 제주의 수령으로 있다가 재물을 탐하여 면직되었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제주가 전에는 작은 도둑을 겪었는데 지금은 큰도둑을 만났다”고 하였다.⁵⁵⁾

위 기록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 파견된 지방관의 탐학(貪虐)은 여러 차례의 민란을 발생시켰다. 그 중 원종 8년(1267)에 있었던 文幸奴의 난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난은 고려 정부에서 파견된 관리의 학정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되었고, 더 나아가 고려 정부로부터 독립하고자하는 분리주의적 성향도 내포하고 있다.⁵⁶⁾ 이러한 제주민의 난은 12세기 이후 고려 중앙정부의 권력이 제

55) 『고려사절요』 18, 원종(元宗) 원년(元年) 정월(丁月) 조(條).

56) 이정신, 「고려 무신정권기 농민·천민항쟁연구」(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139~149쪽.

주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야기된 고려 정부와 제주민의 갈등을 보여 주는 것이다. 고려 중앙정부에 대한 제주민의 거부감과 반발심은 삼별초가 제주에 입도할 당시 제주민이 삼별초의 입도를 도왔다는 역사적 기록에서도 엿볼 수 있다.⁵⁷⁾ 이는 삼별초의 반몽·반정부적 성향이 고려 중앙정부와 갈등 상황에 놓여있던 제주와 어느 정도 교감을 이룬 결과라 할 수 있다.

제주에 입도한 삼별초는 제주를 장악하고, 새로운 통치 권력으로 자리잡는다. 삼별초의 우두머리인 김통정이 제주의 새로운 통치자로서 군림하게 된 것이다. 그는 고려 정부나 정부에서 파견된 지방관과 달리 가혹한 세금을 거두어들이지 않았다. 백성들이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을 세금으로 거두었고, 이를 모아 전술에 이용하였다. 제주민의 세금을 없애준 김통정의 처사는 제주민들에게 크나큰 호응을 얻었을 것이다. 따라서, 김통정에 대한 제주민의 긍정적인 평가는 전설이나 당신본풀이에서 김통정을 영웅으로 형상화시킨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3)의 내용은 김통정의 신이한 능력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김통정은 관군들의 공격을 대비하여 재와 빗자루로 안개를 일으켜 제주섬을 숨기는 연막전술을 편다. 아기장수 전설에서 용마모티프를 떠올려본다면, 다음 전설에서처럼 장우리에서 잡은 말의 신이한 능력을 이용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 늬의 몰(말이 조화를 부리는 몰이다. 몰퐁지에 빗츝룩(빗자루) 식궤(세 개를) 돌아매영(달아매어) 재를 그레(그리로) 확흔계(잡싸게) 감추어(감추어) 노앙(농고) 황바두리 토성을 짹 혼번(한 번) 돌민(돌면), 온 제주도가 으남지어 불어(안개끼듯 자욱하게 되어 버린다.) 그냥 안개. 배는 오당(오다가) 가불억(가버리고) 가불억. 통정을 잡을라고 오당 가불곡 가불곡, 왓왓하니(감감하니) 어떨 거여?⁵⁸⁾

위 전설에서 김통정이 연막전술을 이용하여 관군들의 침입을 막았다고 하

57) 최해(崔海), 『김문정공묘지(金文正公墓誌)』, 『졸고천백(拙稿千百)』 1(서울 : 아세아문화사, 1972).

58) 김영돈·현용준·현길인, 앞의 책, 31~34쪽.

는 것은 김통정의 뛰어난 장수로서의 면모를 부각시키기 위한 삽화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제주도는 본토와 떨어진 섬이기 때문에 접근이 용이하지 않았을 것이고, 바다의 기후 현상 역시 원만하지 않아 관군들이 제주에 입도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지역민들은 김통정의 신이한 도술이 관군의 침입을 막은 것으로 형상화함으로써 김통정의 뛰어난 면모를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4)과 5)에서 김통정과 김방경의 대결은 영웅신화적 성격을 띠고 있다. 김통정은 겨드랑이에 날개가 돌아 있어서 성이 함락되자 바다로 날아갔고, 무쇠 방석을 바다에 던져 띄워 놓는 이적(異蹟)도 행한다. 김통정의 출생 모티프가 없는 전설에서도 관군과의 싸움에서 겨드랑이에 돋은 날개를 이용하여 바다로 날아갔다는 삽화가 있는 것을 보면, 지역민들에 김통정은 아기장수적 인물로 명확히 인식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김통정이 날개를 이용하여 바다로 날아가자 김방경이나 김방경의 부하 장수들은 새나 모기로 변신하여 김통정을 쫓아간다. 이러한 김통정과 김방경의 변신대결담은 건국신화에 나타나는 신격들 간의 변신 대결 양상을 보여 준다. <동명왕신화>에서 해모수와 하백의 싸움이나 <김수로왕신화>에서 김수로와 석탈해의 싸움은 신격들 간의 변신 대결담으로서 김통정과 김방경의 변신 대결담에 대응된다고 볼 수 있다.

3) 아기엽개 이야기

아기엽개 이야기는 아기엽개⁵⁹⁾가 관군에게 무쇠성문을 여는 방법을 알려 주어 김통정이 결국 패배하고 만다는 이야기로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1) 김통정은 상황이 위급해지자 사람들을 성 안으로 들여놓고 무쇠성문을 잠겼는데, 그 때 아기엽개 하나를 빠뜨렸다.

59) 어린 아이를 업어 주고 돌보아 주는 여자아이를 말한다.

- 2) 관군이 무쇠성문을 여는 방법을 몰라 찢찢매고 있으니, 아기업개가 불을 때어 무쇠성문을 녹이면 된다고 일러 주었다.
- 3) 관군이 아기업개의 말에 따랐더니 무쇠성문이 녹아내려 성을 함락시킬 수 있었다.

1)에서 3)의 내용은 김통정이 죽게 된 결정적 계기를 말해 준다. 김통정은 관군이 성으로 쳐들어오자 무쇠로 만든 성문을 닫고 대치한다. 이 때, 아기업개 하나를 성 안으로 들여놓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고 만다. 아기업개는 적에게 성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결국 김통정은 성이 함락되어 달아났다가 비극적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아기업개는 전설에서 마을 사람 중에 물을 길러 성 밖으로 나갔던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몽고군과의 싸움(싸움)이 오래 걸렸는지 성 안에는 물이 없어(없어) 사람들은 물 곤란을 몹시 당하게 됐는지 어떤 사람(사람)이 성 밖으 시암물(샘물) 질러(기르러) 나가서 물을 질러각고 성 안으로 들어갈런다(들어가려 하는데) 무쇠철문이 굳게 닫혀서 들어가지 못하고 무쇠 성문 밖에 잇엇수다(있었습니다). 그 때에 몽고군이 와서 이 성안에 들어갈려면 어떻게 해야(해야) 들어갈 수 잇냐고 힘수다(했습니다). 그 사람은 두 이레 열나흘 쇠철문을 불매질하민(불로 달구면) 무쇠철문의 문거리가 녹아서 문이 열린다고 힘수다(했습니다). 몽고군은 이 말을 듣고 무쇠철문에 불을 피워 두 이레(이레) 열나흘 쇠철문을 불매질을 했더니 문의 문거리라 녹아서 철문이 부서져서 성문이 열려 몽고군사가 쳐들어왔수다(쳐들어 왔습니다).⁶⁰⁾

그러나, 대부분의 전설에서는 ‘아기업개’ 혹은 ‘아기업저지’로 등장하고 있다.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아기업개는 관군 장수들이 성문을 부수는 방법을 몰라 찢찢매고 있는 꼴을 우스워하며 ‘두 이레 열 나흘’ 동안만 무쇠성

60) 임석재, 앞의 책, 205쪽.

문에 불을 떼면 된다고 방법을 알려 준다. 관군들이 아기업개의 말에 따랐더니 과연 쇠문이 녹아 떨어져 성을 함락시킬 수 있었다. 여기에서 ‘애기업개 말도 들어라’라는 속담이 유래하게 되었다는 전설도 전해진다.

김방경 장군은 토성에까지 진격해 와서 입성을 기도하였다. 그러나 토성이 너무 높고 첩문이 잠겨 있어 들어갈 도리가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성 주위를 뱅뱅 돌고만 있었다. 이때 아기업개가 장군의 하는 꼴이 하도 우스워 보여서 물었다. “어떠허연(어째서) 장군님은 성만 뱅뱅 돌입수(돌아다니)까도십니까?”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궁리하는 중이다” “원 장군님도… 저 쇠문 아래 불미(풀무)를 걸어 놓양 두 일퀘(이레) 열나홀만 부껴 볍서(불어 보십시오). 어떻 되느니(어떻게 될지)?” 아기업개 말에 무릎을 치고 김방경 장군은 곧 풀무를 걸어 놓아 불기 시작했다. 열나홀이 되어 가니 첩문이 벌겍게 달아올라 녹아 무너졌다. 그래서 ‘아기업개 말도 들어라’는 속담이 생겨난 것이다.⁶¹⁾

김통정 장군 휘하에 있던 사람덜이 그 예보개 하나를 거 좀 싫어해 가지고 아마 장군 뉘니까 여자들도 좀 좋아 헤신테주(했을 테지). 그러니깐 그 중에서 아마 그 첩실에 그 난걸 그 좀 잘 돌보지 않는다고 내쫓까(내쫓아) 버리니까, 고계 밖에서 뱅뱅 댕돌다가 아, 이거 그 여·몽연합군이 와 가지고 하는 거 보니깐 우습더라 거여. 허니깐 아마 그 꼴을 보면서 웃거든. 그러니깐, “너 왜 웃느냐?” “하, 이게 하도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게 우스워서 웃는다.”고 그리고는 “아, 그까짓 거, 그거 두 일퀘(이레) 열나홀만 걸리믄 그거 그 당장 터주올 건디(부술 건데), 그것도 못한다.”고 “그믄(그러면) 어떻게 흐른 뉘느냐?”고 하니, “하, 여기에다가 풀무를 헤……. 저 불무. 저 풍구 가지고 불을 때 가지고 그냥 디리, 대장간에 가믄(가면) 거 잇잖아요? 그 풀무질하는 거. 풀무를 헤다 말아. 그러믄 그거 아주 쉽게 뉘 건데. 이거 원 장수님들도 영 머리가 안 돌아가신다.”고

61) 현용준, 앞의 책, 110쪽.

이게 바로 방법이구나 생각을 해서, 그쪽에(그 때에) 그렇게 하니까, 십스일 동안, 하니까 보름동안이지, 우리 제주도 말로 두 일퀘 열나홀이라고, 그러니까 이주를 말하는……. 이주 동안 걸 때니깐 두겹이 무너짐과 동시에 그냥 이제 흩어 내려안즈고 이제 쌓았던 게 그래서 그 공략을 헛젠(했다고) 헛주(합니다).⁶²⁾

위 전설에서 아기업개이거나 성 밖으로 물을 길러 나갔다가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어떤 사람’이거나 이들은 모두 토착민에 해당한다. 김통정은 지역 토착민들을 성 안으로 들여놓고 보호하려 하였지만, 아기업개를 빼놓는 결정적 실수를 범하였다. 아기업개를 성 안으로 들여놓지 못하였다는 것은 김통정이 지역민들을 온전히 수용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즉, 김통정을 비롯한 삼별초와 아기업개로 대표되는 토착민 사이에 완벽한 협력이 아닌 갈등이 존재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아기업개의 반역적 행위는 삼별초가 제주에 입도한 이후 지역민과의 사이에서 빚어졌던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아기업개는 아기장수 전설의 부모에 비견되는 면이 있다. 아기장수가 가장 가까운 부모에게 죽임을 당하듯이 김통정 또한 아기업개의 배신에 따른 비밀 누설로 죽임을 당한다. 민중 영웅의 경우는 대개가 부모나 부하, 친인척 등 최측근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는 공통구조를 갖고 있다.⁶³⁾ 김통정의 죽음의 계기가 아기업개가 아닌 김통정의 머슴이었다는 전설이 있는데, 이 역시 김통정이 최측근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는 아기장수 전설의 구조와 일치한다.

김통정은 한 번 침실에 들면 한 달 동안은 식음을 전폐하고 잠을 잤다. 어느 날, 김통정의 드살이(머슴)가 꿈을 꾸었는데, 어떤 백발 노인이 나타나 장군을 잡자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었다. 머슴은 이 꿈 이야기를 잡자는 김통정 장군에게 말하려 가니, 평소 오만한 기질이 있는 머슴이라, 장군은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내쫓아 버렸다. 이

62) 김영돈·현용준·현길언, 「아기업개 말도 들어라」, 앞의 책, 965~966쪽.

63) 김태희, 앞의 논문, 38~39쪽.

것이 원한이 되어 김방경 장군에게 김통정을 죽이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한다.⁶⁴⁾

위 전설에 등장하는 머슴 역시 김통정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되면서 적에게 성을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결국 김통정을 죽음으로 몰아넣는다. 따라서, 머슴과 김통정의 갈등은 아기업개와 김통정의 갈등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다.

아기업개의 성격과 기능은 호국여산신설화에 나타나는 호국여산신과 유사한 측면을 지니고 있다. 호국여산신설화에서 여산신은 나라에 전쟁이나 변란이 일어났을 때 노파나 표모(漂母)의 모습으로 나타나 적을 물리칠 방법을 알려주어 승리하게 만들거나 오히려 그 반대로 적에게 정보를 주어 아군이 몰살되는 형태로 나타난다.⁶⁵⁾ 도술을 부리는 뛰어난 능력의 장수들도 알지 못하는 방법을 제시하여 성을 함락시키게 만드는 아기업개는 호국여산신설화에 나타나는 노파나 표모의 모습과 대응된다. 그런데, 호국여산신설화에서 호국여산신은 설화의 전승 집단에 따라 긍정 혹은 부정의 상반된 성격을 지니게 된다. 그 신격을 숭배하는 집단인가 아닌가에 따라 긍정적인 존재로 형상화되기도 하고 부정적인 존재로 형상화되기도 하는 것이다.⁶⁶⁾ 김통정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아기업개는 민중 영웅인 김통정을 죽게 한 부정적 신격이고, 관군의 입장에서 아기업개는 나라의 위기를 구해준 호국여산신에 해당한다. 김통정과 삼별초를 옹호하던 제주민의 입장에서는 이런 호국여산신의 개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때문에 김통정이 패한 것을 호국여산신의 변형된 모습인 아기업개의 도움 탓으로 돌려 원망하고,⁶⁷⁾ 항파두리성이 함락된 것에 대한 지역민들의 안타까움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64) 현용준, 앞의 책, 113쪽.

65) 권태효, 「호국여산신설화의 상반된 신격 인식 양상 연구」, 『한국민속학』 30(서울: 민속학회, 1998), 242쪽.

66) 권태효, 위의 논문, 221쪽.

67) 권태효, 「제주도 김통정이야기의 당신화 및 전설로의 변용양상」, 『구비문학연구』 8(서울: 한국구비문학회, 1999), 184쪽.

이와 같이 아기업개의 비밀 누설로 김통정이 결국 패배하고 말았다는 이야기는 김통정의 비극적 죽음을 더욱 극적으로 형상화시키는 화소라 할 수 있다. 김통정은 날개 돋은 민중 영웅으로 그 잠재성을 갖고 성장하지만, 결국은 하찮은 존재라 할 수 있는 아기업개로 인해 죽임을 당한다. 민중들은 김통정의 죽음의 원인을 아기업개 탓으로 돌리면서 김통정의 죽음을 안타까워한다. 민중 영웅이 될 만한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가 하찮은 존재의 결정적 실수로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여전히 힘든 현실을 한탄하는 동시에 현실 변혁이 얼마나 힘든지를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아기업개는 힘든 현실이 변화되지 않는 데 대한 억울함을 투사시키고자 만들어낸 인물이면서 아기업개 역시 민중의 일원으로 설정함으로써 현실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자위하게 만드는 인물이기도 하다. 이러한 아기업개를 통하여 민중들은 나름대로 현실 수용의 방법을 인식하고 이를 전설로 전승시키고 있는 것이다.

4) 샘물 이야기

샘물 이야기는 김통정이 성을 탈출하면서 밟은 바위에서 샘물이 솟아나 지금까지 지역민의 식수로 이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이야기로서,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진다.

이때 김통정 장군은 죽어 가면서 ‘내 백성일랑 물이나 먹고 살아라’하며 **괘(靴)**를 신은 발로 바위를 팡 찍었다. 바위에 **괘** 발자국이 움푹 패고 거리에서 금방 샘물이 솟아 흘렀다. 이 샘물이 지금도 있는데 ‘**괘부리**’ 또는 ‘**괘자국물**’이라 한다. 이 샘물을 고성리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음료수로 이용한다.⁶⁸⁾

그 토성을 뛰멍, 그디 지금 장숫물⁶⁹⁾ 있어요 탁 그냥 돌이 벌러져. 지금도 물이

68) 현용준, 앞의 책, 111~112쪽.

69) 북계주군 애월읍 고성리 향파두리 토성 근처에 있는 샘물

출출 나오 그디 지금도 물이 나. 우리 백성덜 다 이 물 먹어 보라고⁷⁰⁾

김통정은 할수없어(할 수 없이) 성 안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성벽(城壁)에 올라 서서 그 알로(아래로) 내레(내려) 뛰었고 성벽 밑이에는 큰 바우(바위)가 잇었는디 김통정은 내레뎌서 “아아 불쌍한 백성들아. 그동안 수고가 많았다. 물이나 실컨 목게 이 바우에서 물이나 마음껏 목게 솟아나라”함서 내레뛰었수다. 그랫더니 바우에 김통정의 발자국이 패임서(패이면서) 물이 솟아났다고 합니다. 이 물은 설새엇이 솟아나서 사름들은 그 물을 마음껏 목넌디 이 김통정이 성 위에서 내려뛰여 바우에 발자국을 내여 거기서 나오는 시암물을 회뿌리 시암물이라고 합니다.⁷¹⁾

위 전설은 ‘햇자국물’ 혹은 ‘장수물’이 생긴 유래를 설명하는 전설이다. 전설은 증거물을 근거로 사실성과 진실성을 보장받게 된다.⁷²⁾ 김통정 전설은 김통정이라는 인물의 활약상을 ‘햇자국물’ 혹은 ‘장수물’이라는 증거물을 제시함으로써 사실성과 진실성을 보장받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 물을 지금까지 마을 사람들이 식수로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을 덧붙여 전설이 지역민들에게 지금까지 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다음 전설은 샘을 만든 경위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설명되어 특이하다.

갈구미(渴玖媚)라는 여인이 토성 밖에 살며 수절을 지켰다. 갈구미 여인은 김통정이 이끄는 삼별초와 함께 향파두리로 들어왔다. 정절을 지켜 삼별초와 함께 살지 않고 토성에서 좀 떨어진 굴형에서 혼자 살았다. 김통정 장군이 혼자 수절을 지키며 사는 김여인의 형편을 보니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고 한편 가련한 생각이 들었다. 혼자 살려면 식량도 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물도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한 김통정은 햇부리로 바위를 밟아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이 샘물이 바로 <햇부리> <빌레물> <장수물>이라고도 한다.⁷³⁾

70) 김영돈·현용준·현길언, 앞의 책, 36쪽.

71) 임석재, 「회뿌리 샘물」, 앞의 책, 205쪽.

72) 최운식, 앞의 책, 87쪽.

위 전설에서는 김통정이 수절을 지키며 혼자 사는 ‘갈구미’라는 여인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겨 샘을 만들어 주었다고 한다. 이는 김통정의 인간적인 면모가 강하게 드러난 전설이라 하겠다.

이처럼 김통정이 샘을 만들어 지역민들에게 식수를 제공한다는 이야기는 김통정을 긍정적 존재로 부각시키는 화소라 할 수 있다. 제주도는 현무암 지질로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마을은 샘을 중심으로 형성되며, 지역민들에게 물은 그 무엇보다 귀중한 대상으로 인식된다. 전설에서 김통정은 죽어가면서 자신을 위해 고생한 백성들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그에 대한 보답으로 샘을 파 준다. 자신이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지역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고자 하는 김통정의 모습은 민중들에게 긍정적인 존재로 인식되기에 충분하다.

5. 죽음 및 사후담

김통정의 죽음과 그 이후의 이야기는 아기장수의 비극적 결말과 유사하다. 김통정의 아기장수적 면모는 겨드랑이에 날개가 돋고 온몸이 비늘로 덮여 있다는 신이한 징표보다 지배층에 저항하다 비극적 죽음을 맞이하는 부분에서 더욱 극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김통정은 아기장수가 비밀을 누설한 것과 같이 고개를 잠깐 들거나, 겨드랑이를 한 번 드는 잠깐의 실수로 죽임을 당하게 된다. 이 사소한 실수는 뛰어난 장군의 죽음을 더욱 안타깝고 비극적으로 표현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다음 전설을 통해 김통정의 죽음담을 구체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성문을 무너뜨리고 김방경 장군의 군사가 몰려들자, 김통정 장군은 깔고 앉은

쇠방석을 바다 위로 내던졌다. 쇠방석은 물머루(수평선) 위에 가 뗏다. 김통정 장군은 곧 날개를 벌려 쇠방석 위로 날아가 앉았다. 김방경 장군은 어쩔 도리가 없었다. 다시 아기 업개에게 묘책을 의논했다. 아기 업개는 장수 하나는 새로 변하고 또 한 장수는 모기(또는 파리)로 변하면 잡을 수 있으리라 했다. 김방경 장군 군사들은 곧 새와 모기로 변해서 쇠방석 위의 김통정 장군을 따라갔다. 김통정 장군은 난데없이 새와 모기가 날아오는 것을 보고 심상치 않은 생각이 들었다. 곧 쇠방석을 떠서 고성리 마을 서편에 있는 굴그미라는 내(川)로 날아왔다. 새와 모기로 변한 김방경 장군 군사들은 다시 뒤를 쫓아왔다. 새는 김통정 장군의 투구 위에 와 앉고, 모기는 얼굴 주위를 돌며 앵앵거렸다. ‘이 새는 나를 살리려는 새냐, 죽이려는 새냐?’ 이렇게 중얼거리며 고개를 들어 새를 보려 했다. 머리가 뒤쪽으로 젖혀지자 목의 비늘이 거슬리어 틈새가 생긴 것이다. 이 순간 모기로 변했던 장수가 칼을 빼어 김통정 장군의 목을 비늘 틈새로 내리쳤다. 떨어지는 모가지에 얼른 재를 뿌려 놓았다. 비늘이 온몸에 꼭 깔려 칼로 찢어도 들어가지 않던 김통정 장군의 모가지가 끝내는 떨어지고, 재를 뿌려 놓으니 두 번 다시 모가지가 붙지 못한 것이다.⁷⁴⁾

위 전설에서 김통정은 김방경이 성으로 쳐들어오자 바다로 날아가 무쇠방석을 깔고 앉는다. 그러자 김방경의 부하 장수들은 새와 모기로 변하여 쫓아와 주위를 맴돌았고, 김통정은 새를 보기 위해 고개를 들었다. 순간, 목의 비늘이 들러지자 김방경의 부하 장군들이 비늘 틈새를 칼로 내리쳐 죽였다는 내용이다. 떨어진 목이 다시 붙지 않도록 재를 뿌려 놓는 것은 지하국대적퇴치 설화에서 지하국의 괴물을 퇴치하는 방법과 유사하다. 지하국대적퇴치 설화에서는 지하국의 대적(大賊)에게 술을 권해 잠들게 하고, 대적의 목의 절단 부분에 재를 뿌려서 목이 다시 붙지 않도록 하여 대적을 퇴치한다.⁷⁵⁾ 잘려진 목에 재를 뿌리는 행위는 잘려진 목도 다시 붙일 수 있을 만큼

74) 현용준, 앞의 책, 111쪽.

75) 윤복희, 「지하국대적퇴치 설화의 공간 구조와 의미」, 『어문논집』 7(서울 : 숙명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7), 17쪽.

절대로 죽지 않는 능력의 소유자를 처치하기 위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민중들은 지하국의 괴물처럼 김통정 역시 도술과 능력이 뛰어나 절대로 죽지 않는 강력한 존재라고 믿었다. 그러한 그의 죽음을 정당화하기 위해 지하국 대적퇴치 설화를 차용하여 비극적 최후를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전설에서 김통정은 온몸에 비늘이 덮여 있어 칼로도 찌를 수 없는 존재로 형상화되어 있다. 이는 김통정이 쉽게 죽지 않는 영웅적 존재임을 부각시키기 위한 화소라 할 수 있다. 민중들은 김통정을 겨드랑이에 날개가 돌아 있거나, 온몸에 비늘이 덮여 있는 비범한 존재로 형상화하여 영웅적 활약을 기대한다. 그러나, 결국 여·몽연합군에게 패배하고 말았다는 역사적 사실을 수용해야 했으므로, 뛰어난 능력에 비해 너무나 사소한 실수로 죽게 되었고 이야기함으로써 그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김통정이 김방경 혹은 중국에서 온 장수들과의 싸움에서 안타깝게 패배하는 내용은 다음의 전설에도 나타나 있다.

김통정 장군은 태어날 때부터 온몸에 비늘이 덮여 있어서 칼로는 죽일 수가 없었다. 또한 김방경 장군 역시 도술이 능한 장군이었다. 모기로 변해서 김통정 장군에게 날아가서는 얼굴 주변을 돌며 앵앵 거렸다. 김통정 장군이 이거 웬 모기인가 하고 고개를 들 때 비늘이 거슬리어 틈새가 생기자 바늘로 목을 찔러 죽였다.⁷⁶⁾

이제는 요놈의 장수덜은 잡을 수 읍거든(없거든). 도망쳐 부니(버리니). 둘이 연구하기를, 하나는(하나는) 하는 말이 “나는 모기가 돼겠다.” 모기라며는 귀에 대며는 앵앵하거든. 이놈은 때려사(때려야) 돼어. 통정은 비늘이 몸에 이시난 칼이 느시(전혀) 아이 들어가. 하니 모기가 앵앵하는 바람에(바람에) 비늘이 들러질 거 아이라게(아닌가)? 경하민(그렇게 하면), “굴러(거기로) 너 칼로 굴리라(갈려라).” 목에 대영(대어) 앵앵하여 가난, 통정이 모기 꼬리젠(때리려고) 하단(하다가) 그 비늘이 들러졌어. 경하단(그렇게 하다) 보난(보니까) 그놈덜이 확하계(재빨리) 굴겨 부난(버리니) 오곳

76) 제주도, 앞의 책, 217쪽.

비닐 트멍(틈)으로 칼이 들어간. 중국늑안티 경호연 죽었고⁷⁷⁾

위 전설에서 김통정의 안타까운 죽음은 일반적인 아기장수 전설에서 아기장수가 관군에게 죽임을 당하는 부분과 유사하다. 그러나, 김통정 전설에서는 김통정의 사후담에 그 비극성이 더 강하게 드러나 있다. 김통정이 죽은 후 유태한 아내를 죽였더니, 뱃속의 아기 또한 김통정처럼 아기장수적 면모를 지니고 있더라는 내용의 이야기이다. 아기장수 전설에서 아기장수는 태어날 당시에 죽임을 당하거나, 자라서도 뚜렷한 행적을 남기지 못한 채 죽임을 당한다. 그러나, 김통정은 일반적인 아기장수와는 달리 장군으로 성장하여 관군과 대치하면서 영웅적 능력을 보여 준다. 그렇기에 지배층의 입장에서는 김통정의 후손을 멸종시켜 민중 영웅의 탄생을 저지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전설에서 아내의 죽음은 김통정을 닮은 후세대 아기장수의 죽음과 관련된다. 이는 다음 전설에서 김방경이 김통정을 죽인 후 아내를 찾아가 임신 여부를 확인하고, 임신임을 확인하자 아내를 태워 죽이는 장면에서 확인된다. 이 끔찍한 살해 장면은 아기장수 전설에서 부모나 친지, 동네 사람들이 아기장수를 죽이는 참혹한 살해 장면에 대응된다고 하겠다.

김통정 장군을 죽인 김방경 장군은 곧 토성 안으로 달려들어 김통정 장군의 처를 잡아냈다. 토성 안(지금의 붉은 오름 뒤쪽)에는 약 3정보 가량 되는 평지가 있는데, 여기는 당시 물을 괴게 해서 김통정 장군이 뱃놀이하던 곳이었다. 이 물 위에 길마를 놓고 김통정 장군의 처를 끄집어다 그 위에 올려 앉혔다. 뱃속에 임신한 자식이 있는가를 물에 비쳐 알아보고 완전히 멸종시키기 위해서였다. 길마 위에 걸터 앉혀 보니 물에는 뱃속의 아이 그림자가 어렸다. 죽여야 하는 것이다. 곧 밑으로 물을 붙여 태워 죽이니, 매 새끼 이흠 마리가 죽어 떨어졌다 한다. 날개가 돋친 김통정 장군의 자식이니 매 새끼로 임신된 것이다.⁷⁸⁾

77) 김영돈·현용준·현길언, 앞의 책, 35~36쪽.

78) 현용준, 앞의 책, 112쪽.

위 전설에서 김통정이 날개 돋은 장군이었으므로, 그 자식 역시 매 새끼로 임신되었다는 것은 김통정의 자식 역시 아기장수적 기질을 타고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방경으로 대표되는 지배층은 아기장수의 또 다른 탄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김통정의 자식을 태워 죽임으로써 민중의 개혁적 희망을 제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역으로 민중들은 아기장수의 꿈이 동시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김통정의 자식이 매 새끼가 아닌 완벽한 아기장수의 모습으로 형상화되는 전설도 전해진다.

아기 업개의 도움으로 김통정 장군을 죽인 김방경 장군은 그 공을 갚으려고 아기 업개를 찾아갔다. 아기 업개는 임신해 있었고, 그 아이가 김통정 장군의 아이임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아기 업개를 죽이고 배를 갈라보니 비늘이 달리고 날개가 돋는 아이가 한참 파닥파닥 뛰더라 한다.⁷⁹⁾

위 전설에서 김통정의 아이를 임신한 아기업개는 김통정과 똑같이 온몸에 비늘이 덮여 있고 날개가 돋은 아이를 임신하였다. 이는 김통정의 출생 당시와 똑같은 모습으로 김통정의 자식 역시 아기장수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이다. 김통정의 아이가 한참동안 파닥파닥 뛰다 죽었다고 함으로써 그 비극성은 최고조에 달한다. 또한, 아이를 비참하게 죽인 지배층의 잔인함에 대해 민중들은 강한 분노를 느끼게 된다. 지배층의 잔인함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해 준 아기업개를 죽이는 장면에서도 나타난다. 김방경은 자기를 도와 주었지만, 김통정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 아기업개를 죽이는데, 이는 지배층의 이기적이고 잔인한 면모를 보여주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김통정의 죽음 및 사후담은 김통정의 아기장수적 면모를 더욱 부각시키는 화소라 할 수 있다. 김통정을 죽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김통

79) 현용준, 앞의 책, 113쪽.

정의 자식마저 제거하고자 하는 것은 민중 영웅 탄생에 대한 지배층의 두려움을 반영하는 것인 동시에 민중의 입장에서는 민중 영웅이 동시대에서만 끝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다는 잠재적 소망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김통정의 죽음 및 사후담과 관련하여 역사적 증거물을 제시하는 전설도 있다. 다음의 전설에서는 ‘붉은 오름’과 ‘안오름’의 유래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김통정 장군의 처를 죽이니, 그 피가 일대에 흘러내려 흙이 붉게 물들었다. 그래서 ‘붉은 오름’이란 이름이 생겼고 지금도 여기는 흙이 붉은 것이다. 김통정 장군은 토성을 뛰어나갈 때 아기업개의 말 때문에 죽게 된 것을 알았다. 그래서 성 밖으로 뛰어나가며 안오름에 있는 아기업개를 발견하고는 발길로 한 대 차고 날아갔다. 아기업개는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며 죽었다. 그 피가 번져 지금도 안오름의 흙은 붉다.⁸⁰⁾

고성리 흙붉은 오름에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가 전한다. 김통정 장군이 멸망해서 죽을 상황에 처하자 애첩과 딸이 적군에게 잡혀 죽을 바에는 내가 죽이겠다고 해서 칼로 무참히 찢러 죽이니 선혈이 벌겋게 흘러 내려 주변 흙이 붉게 물들었다. 그래서 흙붉은 오름이란 지명이 생겼고 지금도 때에 덮여 잘 보이지 않지만 흙이 붉은색을 띤다고 한다.⁸¹⁾

위 전설은 ‘붉은 오름’과 ‘안오름’의 유래를 김통정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 김통정이 자신을 배반한 아기업개를 죽이거나, 그의 아내와 딸을 죽여 흘러 내린 피가 흙을 붉게 물들였고, 지금까지 그 지역의 흙이 붉다고 이야기하면서, ‘붉은 오름’이란 지명의 유래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당시 삼별초와 여·몽연합군의 치열했던 전쟁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 지역민들은 삼별초와 여·몽연합군의 최후 접전지였던 곳의 많은 자연물들을 당대의 역사적 체험과

80) 현용준, 앞의 책, 112쪽.

81) 제주도, 앞의 책, 217쪽.

결부시켜 설명하면서, 전설의 사실성과 진실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6. 전승 집단의 의식

개인이 창작한 문예작품에 작가의 인생관이나 작가의식이 드러나듯이, 설화에는 그 설화를 공유했던 민중들의 의식과 성격과 취향이 드러난다. 설화의 특성 중 하나인 집단성은 설화에는 이를 공유하는 집단의 특성·사상 및 생활상이 잘 표출되고 있음을 지적하는 말이다.⁸²⁾ 특히, 제주도는 지리적·역사적 환경으로 인해 나름대로 특수한 생활 방식을 구축해 왔다. 이러한 독특한 제주만의 생활방식은 제주의 자연 환경이나 역사적 사실을 독특하게 인식하도록 만들었는데, 이러한 인식은 제주 민중이 공유해 온 전설 속에 잘 반영되어 있다.

김통정은 역사적으로 반역 인물에 해당하고, 史書의 기록 또한 미비하다. 이러한 김통정이 전설 속에서 영웅적 인물로 형상화되고 있다는 것은 김통정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이 제주민에게 그만큼 강한 영향을 끼쳤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제주 민중이 김통정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어떻게 인식해 왔고, 이러한 인식이 전설 속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영웅 출현의 기대

김통정 전설에서 김통정은 지렁이의 자식으로 태어나고, 날개가 돋아 있으며 온몸에는 비늘이 덮여 있는 비범한 존재로 등장한다. 백성들에게 거두어들인 재와 빗자루를 이용하여 제주섬을 감추는 도술을 부리기도 하고, 새나 새우로 변신하는 신이한 능력을 지닌 존재이기도 하다. 이러한 김통정은

82) 임흥선, 「제주도 설화에 드러난 제주도민의 의식 연구」, 『논문집』 13(제주 : 제주대학교, 1983), 129쪽.

제주민들에게 중앙으로 바치는 세금을 바치지 않도록 해 주었고, 죽음의 위기에 처한 순간에도 샘을 만들어 제주민들의 식수난을 해결해 주려한 긍정적 존재로 형상화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김통정은 고려 정부에 반기를 삼별초의 장군으로서 제주를 군사적 요충지로 삼았을 뿐, 제주민을 위해 정부와 싸운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설에서는 김통정이 지배층과의 대결에서 패배하는 것을 무척 아쉬워한다. 이는 김통정을 제주 민중의 영웅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설은 역사적 사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지만, 전설의 향유자들인 민중들은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나름대로 민중의 안목으로 재해석하여 받아들이기도 한다. 여기에서 역사적 사실의 변형이 이루어진다. 김통정 전설에서 김통정은 역사상 반역적 인물이었지만, 제주도에서는 그를 영웅의 모습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제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김통정이 영웅적 인물로 비춰졌던 것은 그가 지배층에 대항했다는 데 있다. 앞서 살펴 보았듯이 제주민은 본토 혹은 중국에 대한 강한 저항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토의 중앙 정부에 대항하는 김통정은 제주민과 같은 처지에 처한 인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김통정의 승리는 자신들을 억압하는 본토의 몰락을 의미하며, 김통정의 패배는 또다시 본토에 구속되어 핍박받는 현실을 살아야 하는 삶의 연장선을 의미한다. 이러한 제주민의 의식은 김통정을 아기장수적 면모를 지닌 존재로 형상화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김통정의 패배라는 역사적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기에 김통정의 죽음은 아기장수의 비극적 최후로 그리고 있다. 김통정은 신이한 능력의 소유자로서 쉽게 죽지 않는 존재였지만, 사소한 실수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고 함으로써 그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제주민은 억압받는 현실을 구원해 줄 영웅 탄생이 후세대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믿음을 전설 속에 반영하고 있다. 이는 김통정의 유태한 아내가 김통정 처럼 날개나 비늘이 돋은 아이를 임신하였다거나, 아홉 마리의 매새끼를 임신해 있더라는 전설에서 발견할 수 있다. 김통정은 비범한 존재였으므로, 그

의 자식 역시 비범함 존재일 것이라는 민중들의 의식이 김통정의 자식까지 비범한 존재로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인 아기장수 전설에서 아기장수의 출현은 당대에 이루어지고 죽음으로써 마무리된다. 그러나, 제주도의 김통정 전설에서는 김통정의 죽음으로 영웅 출현이 거세되는 것이 아니라 제 2의 김통정이 탄생할 수 있다는 잠재성을 후손에게까지 미루고 있다. 이는 본토보다 훨씬 더 강한 영웅 출현의 기대를 담아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민중들이 영웅의 출현을 바라는 것은 힘든 현실에 대한 변화를 소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웅 출현의 기대가 강하다는 것은 곧 현실 변화의 염원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제주는 지리적 특성상 비옥하고 풍부하게 살아갈 수 없었다. 따라서, 제주민은 척박한 현실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영웅 출현의 기대에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2) 외세에 대한 저항 의식

제주민에게 외세(外勢)란 제주가 아닌 섬 밖의 외부 세력을 의미한다. 그것은 몽고나 중국과 같은 국외 세력일 수도 있고, 신라나 고려와 같은 본토 세력일 수도 있다. 제주민에게 외세란 국내의 본토와 국외 양자(兩者)를 아우르는 의미인 것이다. 제주민의 외세에 대한 강한 저항감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제주가 아닌 타 지역을 통칭하여 ‘육지(陸地)’라고 부르거나, 타 지역에서 온 사람을 ‘육지놈’으로 비하하여 칭하는 데에서도 알 수 있다.

제주민의 외세에 대한 저항감은 역사적 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제주는 5세기에서 7세기경에는 ‘탐라국(耽羅國)’으로서 자치적인 국가 형태를 이루고 있었다.⁸³⁾ 그러나, 고려 숙종 10년 탐라가 완전히 고려의 군현으로 편입된 후 고려 중앙정부에서는 현령관을 파견하여 탐라를 통제하게 된다. 이 현령관들은 제주에서 탐학을 일삼았고, 그로 인해 중앙정부와 제주민의 사

83) 박용후, 「탐라 부족국가의 성립」, 『제주도연구』 3(제주 : 제주도연구회, 1986), 39~40쪽.

이에는 심각한 갈등이 형성된다.⁸⁴⁾ 『고려사절요』에는 정부에서 파견된 지방관들의 가혹한 세금 징수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다. 제주에 파견된 지방관들은 가난한 자라도 모두 부자가 되었다거나, 제주민들에게 탐학을 일삼다 면직된 제주 부사를 ‘큰도둑’으로 일컫는 기록에서 지방관들의 탐학 행태를 여실히 알 수 있다. 이런 지방관의 탐학 때문에 제주에서는 번석(煩石)과 번수(煩守)의 난, 文幸奴의 난 등 여러 차례 민란이 발생한다. 이러한 제주민의 난은 지방관들의 학정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되었고, 더 나아가 고려 정부로부터 독립하고자하는 분리주의적 성향도 내포하고 있다.⁸⁵⁾ 제주민에게는 고려 정부 또한 제주의 안위를 위협하는 하나의 외세에 해당했던 것이다.

삼별초의 난이 평정된 후 제주에 일정 기간 머물렀던 몽고군과 목호들의 횡포는 제주민에게 중국에 대한 저항감을 형성시켰다. 원나라는 지원군을 보내어 삼별초를 복멸(覆滅)한 다음 원종 14년 6월에 실리백(實里伯)으로 탐라국초토사(耽羅國招討使)를 삼아 둔진군(屯鎭軍) 1천 7백인을 탐라에 주둔시키고, 이 땅의 공적(貢賊)으로 모시포(毛施布) 백 필을 바치게 하였다. 그 뒤 30년 동안 원나라는 제주를 군사적 요충지로 삼고, 관부를 두어 제주를 직접 다스렸다. 특히, 목마사업은 고려 말년까지도 목호의 손으로 경영되어 목마를 원나라 정부에 보냈다.⁸⁶⁾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통해 삼별초의 난이 평정된 후 제주에 머물렀던 수많은 몽고군과 목호들이 제주민들을 목마사업에 동원하고, 세금을 바치게 하는 등 가혹한 행위를 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체험에서 비롯된 본토와 중국에 대한 저항감은 전설에서 김통정을 민중 영웅의 모습으로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과 일맥상통한다. 당대 고려 정부에 반기를 든 김통정을 지역민들을 구원해 줄 영웅의 모습으로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은 바로 고려 정부에 대한 제주민의 반감을 나타내는 것이다. 김통정은 정부 입장에서 보면 역적(逆賊)이었지만, 제주민의 입장에

84) 윤용혁, 앞의 책, 266~268쪽.

85) 이정신, 앞의 책, 139~149쪽.

86) 김상기, 앞의 책, 488~489쪽.

서는 자신들을 폄박하는 지배층에 항거한 영웅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여·몽연합군에 대항하는 모습을 영웅적인 면모로 화려하게 묘사하는 것은 김통정에 대한 긍정적 민중 의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그의 능력이 여·몽연합군보다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죽임을 당했다고 설명함으로써 그를 죽인 지배층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표출하고 있다. 이는 김통정과 대치하는 외세의 힘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의미하는 것이다. 제주민에게 김통정은 고려 정부의 탐학과 몽고의 지배로부터 제주를 구원해 줄 영웅적 인물로 인식되었고, 이러한 제주민의 소망이 그에 대한 풍부한 설화를 낳게 한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3) 삼별초의 난에 대한 상반된 인식

김통정 전설은 ‘삼별초의 난’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다. 김통정이 진도에서 패한 삼별초의 무리를 이끌고 제주에 입도한 후 3년에 걸친 항몽은 제주민에게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주었다. 특히, 삼별초의 군사적 요충지였던 애월 지역은 그 피해와 영향이 더욱 컸을 것이다. 이는 애월 지역에 김통정 설화가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제주민이 삼별초의 난을 바라보는 입장은 긍정 혹은 부정의 상반된 인식 양상을 보인다. 삼별초의 난을 긍정적으로 바라본 이유는 당대 지배층에 대한 강한 저항감 때문이었고, 부정적으로 바라본 이유는 삼별초의 패배가 가져온 더 큰 피해 때문이다. 삼별초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오히려 고려 정부에 저항하였다는 것은 삼별초의 제주 입도 당시를 설명하는 역사적 기록에서도 엿볼 수 있다.⁸⁷⁾ 삼별초는 당대 고려 정부에 반기를 든 군사 집단이었다. 그러나, 제주 토착민들은 관군에 협조하여 적으로 규정된 삼별초를 막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삼별초가 무사히 제주에 입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였

87) 최해(崔濩), 앞의 책.

다. 이는 삼별초의 체제 저항적 성격에 제주민이 호응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삼별초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김통정을 긍정적 존재로 형상화하는 전설에서도 나타나 있다. 김통정을 아기장수적 민중 영웅으로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이나, 지역민들에게 샘을 파 주었다는 이야기는 김통정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말해 준다.

그러나, 삼별초의 패배는 제주민에게 이전보다 더 큰 피해를 안겨 주었다. 삼별초의 난이 여·몽연합군에 의해 평정된 후 제주는 원나라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게 된다. 원나라에서는 목호들을 파견하여 목축업을 실시하게 되는데, 목호들의 잔인한 횡포는 제주민에게 더 큰 시련을 안겨주었던 것이다. 또한, 이때부터 바치기 시작한 말의 조공은 원나라가 패망한 이후에도 지속되어 제주민은 이전보다 더 가혹한 세금 징수에 시달리게 되고 만다.

이러한 가혹한 시련은 김통정을 긍정적 존재만이 아니라 부정적 존재로 형상화하기에 이른다. 김통정에 대한 지역민의 반발은 아기엽개나 김통정의 머슴이 비밀을 누설하여 김통정을 죽음으로 몰아넣는다는 전설에서도 드러난다. 뿐만 아니라 김통정이 토성을 쌓을 당시를 극심한 흉년기로 묘사하면서 백성들이 얼마나 기아(飢餓)에 허덕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이러한 일련의 설화들은 김통정에 대한 제주민의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삼별초의 난과 전쟁에 대한 피해 의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7. 결론

이상의 논의에서처럼 김통정 전설은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영웅의 일대기 양식을 보이고 있으며, 아기장수 전설의 서사 구조와도 일치하고 있다. 김통정의 일대기는 출생담, 행적담, 죽음 및 사후담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출생담은 김통정이 신이하고 비범한 존재임을 부각시키기 위해 지렁이의 자식으로 태어났거나 겨드랑이에 날개가 돋아 있고 온몸에 비늘이

덮여 있는 인물로 형상화하고 있다.

둘째, 행적담은 김통정의 뛰어난 장수로서의 면모와 영웅적 면모를 부각시키는 내용으로 김통정이 날개나 비늘이 돋아 있어 쉽게 죽지 않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이야기, 연막전술을 펴거나 김방경과의 변신 대결을 펼치는 전투 이야기, 아기업개의 비밀 누설로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아기업개 이야기, 성을 탈출하면서 밟은 바위에서 샘물이 솟아난다는 샘물 이야기로 요약할 수 있다.

셋째, 죽음 및 사후담은 김통정의 역사적 패배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김통정의 죽음을 아기장수의 비극적 최후와 동일시하여 그의 죽음에 대한 민중의 안타까움을 반영하고 있다.

넷째, 김통정 전설에는 중국이나 본토로부터 착취와 억압을 받았던 역사적 체험으로 인해 외세에 대한 제주민의 강한 저항 의식과 함께 김통정을 지배층의 억압과 착취에서 벗어나게 해 줄 민중 영웅으로 형상화하면서 현실 변화에 대한 소망과 영웅 출현의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당대 체제에 저항하여 민중을 구원할 것으로 기대했던 삼별초의 난이 패배하면서 겪게 된 고통스런 역사적 체험은 김통정을 긍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이기도 한 이중적 모습으로 형상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참고문헌〉

1. 자료

『高麗史』

『高麗史節要』

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 I, 제주: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9 전라남도·제주도편, 서울: 평민사, 1994.
제주도, 『제주도전설지』, 제주: 제주도, 1985.
진성기, 『제주도전설』, 서울: 백록, 1992.
현용준·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 9-3 제주도 서귀포시·남제주군편, 서울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현용준, 『제주도전설』, 서울: 서문당, 1976.

2. 단행본

- 김상기, 『고려시대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85.
민족문화추진위원회 편, 『국역 동사강목』, 서울: 민족문화추진위원회, 1966.
윤용혁, 『고려 삼별초의 대몽항쟁』, 서울: 일지사, 2000.
최래옥, 『한국구비전설의 연구』, 서울: 일조각, 1981.
최운식, 『한국 설화 연구』, 서울: 집문당, 1991.
최 해, 『金文正公墓誌』, 拙藁千百 1, 서울: 아세아문화사, 1972.
현길언, 『제주도의 장수설화』, 서울: 홍성사, 1981.

3. 논문

- 권태효, 「호국여산신설화의 상반된 성격 인식 양상 연구」, 『한국민속학』 30, 서울: 민속학회, 1998.
_____, 「제주도 김통정이야기의 당신화 및 전설로의 변용양상」, 『구비문학연구』 8, 서울: 한국구비문학회, 1999.
김태희, 「체제저항적 인물담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_____, 「이물감응 탄생설화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박용후, 「탐라 부족국가의 성립」, 『제주도연구』 3, 제주: 제주도연구회, 1986.
서대석, 「백제신화연구」, 『백제논총』 1, 서울: 백제문화개발연구원, 1985.
오대혁, 「金通精 관련 서사물에 투영된 역사인식」, 『東阮論集』 10, 서울: 동국대학교대학원, 1997.

- 오세길, 「한국 장군설화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 윤복희, 「지하국대적퇴치 설화의 공간 구조와 의미」, 『어문논집』 7,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7.
- 이보라, 「아기장수 전설 연구—어머니의 부정적 역할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이정신, 「고려 무신정권기 농민·천민항쟁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 이지영, 「용사설화의 측면에서 본 <지네처녀> 설화 연구」, 『구비문학연구』 4, 서울: 한국구비문학학회, 1997.
- 임홍선, 「제주도 설화에 드러난 제주도민의 의식 연구」, 『논문집』 13, 제주: 제주대학교, 1983.
- 주명희, 「삼국사기 열전의 소설사적 위상」, 『고소설사의 제문제』, 집문당, 1993.
- 한미옥, 「백제 건국신화의 계통과 전승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